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일제강점기 한국소설에 나타난 중국인 이미지 연구

-간도배경 소설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宋 靜

2014년 2월

일제강점기 한국소설에 나타난 중국인 이미지  
연구

-간도배경 소설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동 윤

宋 靜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2월

송정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4년 2월

A Study of Chinese Images in Korea Novel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in the work of Gando context Novels

Song, Jing

(Supervised by professor Kim, Dong-yu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14. 0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Kim, Dong-yun, Prof. of Literature  
.....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2
3. 연구 범위와 방법 .....	5
II. 간도배경 소설에 나타난 중국인 이미지의 양상 .....	8
1. 민족감정의 작용과 타자화된 중국인 이미지 .....	8
1) 민족 울분의 자극자: 김동인의 「붉은 산」 .....	9
2) 자민족 중심 시각의 타자: 이태준의 「농군」 .....	15
2. 사회구조적 갈등관계로서의 중국인 이미지 .....	22
1) 횡포 일삼는 ‘가진 자’: 최서해의 소설 .....	22
2) 가해자 속의 공동 수난자: 강경애의 소설 .....	31
3. 입체적이고 인간적인 중국인 이미지 .....	41
1) ‘적’과 ‘동지’의 이중성: 안수길의 소설 .....	41
2) 일상의 보편적 인간상: 박계주의 소설 .....	54
III. 간도배경 소설의 문학사적 의의 .....	65
1. 작가의 간도체험 유형과 중국인 이미지의 관련성 .....	65
2. 간도배경 소설의 의의와 시사점 .....	69
IV. 결 론 .....	72
<참고문헌> .....	75
<中文摘要> .....	78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한국과 중국의 문학 교류는 매우 오래되었다. 신라의 삼국통일을 전후로 金仁問, 強首, 良圖 등 당나라 유학생이 많아졌고 당나라 賓貢科에 급제한 사람은 무려 58명이나 되었다. 그 가운데 崔致遠과 薛聰은 당대의 대학자로 이름을 떨쳤다. 이때부터 한·중 양국의 문학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고려시대는 중국으로부터 과거제도를 도입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朴趾源과 朴齊家 등 北學派 학자들이 청나라의 진보적인 문명을 수용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오면서 봉건 왕조의 부패가 심각해진 가운데 西學東進의 충격으로 한국과 중국 모두 서양의 시각에 맞춰지게 되었다. 특히 20세기에 이런 경향이 더욱 심해졌고 한·중 양국 간의 문학 교류도 이 시기부터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한국은 慕華思想의 한계에서 벗어나 중국문학에 대하여 비교적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조선 지식층의 의식이 변화하고 실학을 바탕으로 實事求是가 주창되었다. 이 점은 문학 작품 속 중국인에 대한 이미지 형상화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고구려 유리왕의 「黃鳥歌」에서 그의 두 아내 중의 한 명인 漢나라 ‘雉姬’는 한국 문학에 첫 등장한 중국인이다. 그 후부터 중국인의 이미지가 한국 문학 작품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일제의 침략과 수탈로 인해 韓민족이 간도 지역으로 대규모 이주하여 집단을 형성하며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거기서 원주민인 중국인과 조선 유이민이 혼거하다 일제의 박해를 받는 공통의 운명을 가지게 되었다. 문학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음을 물론이다.

일제강점기에는 항일 저항운동과 같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間島로 이주하는 지식인들이 많았다. 그 다수의 문인들도 간도 지역을 유랑하거나 정착 생활을 하며 여러 작품을 발표하였다. 작품 속에서는 조선 유이민의 이주와 정착의 수난사, 이주로 인한 타자와의 만남과 그로 인한 갈등·타협·혼종적 융화 및 자기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주로 다루어졌다.<sup>1)</sup> 이 때 복잡한 역사 배경 아래 異민족인 중국인의 등장은 불가피해졌고, 전보다

매우 다양한 이미지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시기에 한국인이 중국인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중국인 이미지는 소설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작가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인의 이미지를 생성했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부터 1945년까지 한국의 간도배경 소설의 작가들을 ‘유민작가’, ‘이민작가’, ‘정착민작가’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 각 작가별로 전개 양상과 특성을 살피고, 각 작가 자신의 실제 체험 또는 일제강점기 간도 지역의 정치 상황이 중국인 이미지 형상화에 있어서 어떤 변동 요인으로 작용하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구체적인 작품에서 중국인 이미지 특성과 작가의식을 분석함으로써 각 작가가 추구하였던 문학적 진실과 민족 문학적 지평을 밝혀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에 간도의 한국인이 지닌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간도 유이민문학의 문학사적 의의를 온당하게 해명해 보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검토

간도 문학에 대한 연구는 탈냉전 시대를 맞아 중국이나 러시아 지역으로 왕래가 활발해지고 『삿트는 대지』와 같은 자료가 발굴되면서 한국문학 연구의 관심이 되기 시작했다. 그 간의 연구 경향은 ①한국문학의 연장으로서 민족주의적 성격을 분석하는 방향, ②국책 문학 혹은 친일문학으로서의 성격을 규명하는 방향, ③이주문학으로서 재만조선인 문학만이 가지고 있는 성격(‘본토 의식’ ‘북향 의식’으로 표현되는 정주 지향)에 주목하는 방향<sup>2)</sup>이 큰 줄기를 이루고 있다.

간도 문학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던 오양호는 학위논문 「한국농민소설 연구」(1981)에서 이농형 농민소설 작품군을 찾아낸 뒤 이어 『한국문학과 간도』<sup>3)</sup>를 간행하였다. 이는 뒤에 나온 채훈의 『일제강점기 재만한국문학 연구』<sup>4)</sup>와 더불어 간도 유이민 사회의 서지

1) 차성연, 「디아스포라 서사의 윤리」, 『국제한인연구』 제6호, 국제한인문화회, 2009, 131쪽.

2) 차성연, 「이주문학에 나타난 타자 재현의 문제 -「소금」과 「붉은 산」의 ‘재만 조선인’ 재현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38집, 한민족문화학회, 2011, 427쪽.

3) 오양호, 『한국문학과 간도』, 문예출판사, 1988.

4) 채훈, 『일제강점기 재만한국문학연구』, 깊은샘, 1990.

자료들을 소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오양호는 다시 『일제강점기 만주조선인문학 연구』<sup>5)</sup>와 『만주이민문학연구』<sup>6)</sup>라는 간도 유이민 연구서를 내놓았다. 그는 “흩어진 혈족으로부터 어렵게 수집하여 비로소 세보를 정리하는 재리의 보첩 사업 같은 의미를 지닌다”면서 그동안 대중들이 관심권 밖에 놓여 있던 간도 유이민문학 관련 자료들을 발굴, 정리하여<sup>7)</sup> 그 실체를 드러내 놓았다. 그러나 간도유이민 문학에 대한 애착으로 유이민문학의 의미나 가치에 대해 지나치게 평가하고 있음이 흠으로 지적된다.

표언복은 『해방전 중국유이민소설 연구』<sup>8)</sup>라는 단행본을 내면서 중국 유이민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나 중국 유이민 문제를 모티프로 하고 있는 모든 작품들을 찾아내어 그 전모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작품들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분석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그는 시대별로 해당 기간에 발표된 소설들을 크게 理想型流移民小説과 圖生型流移民小説로 구분한 다음, 각 유형의 소설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형상화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방대한 연구 대상과 세밀한 작품 분석으로 일제 강점기의 간도 문학에 대하여 비교적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은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연구 범위가 넓어서 깊이 있는 분석이 다소 부족한 것 같다.

정덕준은 『중국조선족 문학의 어제와 오늘』<sup>9)</sup>에서 중국조선족 문학 자료를 바탕으로 1910년대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중국조선족 문학이 이루어낸 성과를 ‘이주·정착사의 재구’라는 관점에서 크게 여덟 시기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중국조선족 문학의 민족문화사적 성격과 그 의의를 규명하였다. 이 연구는 시기별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같은 작가가 다른 연대에 발표한 작품들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연구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다.

간도 유이민문학을 다룬 학위논문들은 1990년대에 들어 풍부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홍연실<sup>10)</sup>은 일제강점기 문학 활동을 한 작가 중 실향의 아픔을 주된 소재로 삼아 작품을 발표한 최서해, 강경애, 안수길의 초기 작품을 중점적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들의 소설

5) 오양호, 『일제강점기 만주조선인문학 연구』, 문예출판사, 1996.

6) 오양호, 『만주이민문학 연구』, 문예출판사, 2007.

7) 오양호는 『한국문학과 간도』, 『일제강점기 만주조선인문학 연구』 등 저서를 통해 『재만조선시인집』, 『민주시인집』, 『삿트는 대지』 등의 자료를 발굴하였다.

8) 표언복, 『해방전 중국 유이민소설 연구』, 한국문학사, 2004.

9) 정덕준, 『중국조선족 문학의 어제와 오늘』, 푸른사상, 2006.

10) 홍연실, 「간도소설 연구 -최서해·강경애·안수길의 작품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에 대한 분석을 통해 특별한 시대에 작가와 작품의 문학적 위치와 특성을 살펴보고 작품 세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작가의 전기적 사실 중에서 작품에 나타나는 경험의 바탕이 되는 요인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밖에도 일제 말 『만선일보』에 수록된 소설작품들을 분석한 변옥정,<sup>11)</sup> 『북향』과 『만선일보』에 발표된 작품들을 주제별로 유형화한 전성호,<sup>12)</sup> 『상해독립신문』과 『북향보』를 중심으로 연구한 이호중<sup>13)</sup> 등의 석사학위 논문들이 있다.

한편, 한국 근·현대문학의 중국문학과와의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한국 근·현대 소설에 나타난 중국인 이미지에 대한 연구도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최일<sup>14)</sup>은 1920~30년대의 한국소설과 산문에 나타난 중국의 이미지를 시대 상황과 연결하여 당대 한국인의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도시 형상, 농촌 형상 그리고 중국인 형상 등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이 중에서 중국인 형상의 경우는 다시 ‘한국이민의 운명공동체’, ‘한국이민운명의 영향因素’, ‘중국사회상황의 代言人’이라는 세 가지 분류로 중국인의 이미지를 파악하였다. 그러나 연구대상은 1920~1930년대의 한국소설과 산문에 한정되어 있어서 연구결과가 대표적이지 못한다.

유인순은 「근대 한국소설에 투영된 중국·중국인」<sup>15)</sup>과 「현대 한국소설에 투영된 중국·중국인」<sup>16)</sup>이라는 논문에서 중국의 생활문화, 정치문화와 鹽官<sup>17)</sup>문화 등으로 나누어 중국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다음 중국 개혁개방을 기준으로 다시 중국의 현대 이미지를 연구하였다. 중국의 정치·관료·생활 등 문화 측면에서 접근하는 연구 방식으로 취하기 때문에 이미지 생성에 대한 분석이 약화된 결과를 얻는다.

서자강<sup>18)</sup>은 한국 개화기의 신소설에 나타난 중국인, 일본인, 서양인 등 이른바 ‘외국인’

11) 변옥정, 「일제강점기 만주유이민소설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12) 전성호, 「일제하 중국조선인소설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13) 이호중, 「일제강점기 재만한국인소설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14) 최일, 「한국현대문학중의 중국형상 연구」, 연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15) 유인순, 「근대 한국소설에 투영된 중국·중국인」, 『한중인문과학연구』제8집, 한중인문학회, 2002.

16) 유인순, 「현대 한국소설에 투영된 중국·중국인」, 『한중인문과학연구』제12집, 한중인문학회, 2004.

17) 중국 전국시대 진나라에 상양변법(商鞅變法)을 시작하여 국가 생업의 기본인 농업과 양잠업을 적극 장려하는 반면 상업(商業)은 말업(末業)이라 하여 철저히 감독하고 통제하는 중농억상(重農抑商)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나라가 식염(食鹽)의 경영권을 관리하는 염관(鹽官)제도가 생기고 후세에 보존하여 독특한 관료문화가 형성되었다.

18) 서자강, 「신소설에 나타난 외국인 이미지 연구」, 산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의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신소설에서 선과 악이 교차된 중국인 이미지가 한국문학 사상 최초의 중국인 양면적 이미지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구 연구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지 못하고 표면적인 접근에 그친다는 것이 취약점으로 지적된다.

우충충<sup>19)</sup>은 1920년대부터 1940년대 중반까지 만주체험 문학과 상해, 북경 등 다른 중국 지역의 체험 문학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비교문학적 방법으로 중국인의 이미지를 他者形象과 自我形象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렇지만 의도와는 달리 연구 결과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쉬운 점이다.

연구사를 검토해 보면 한·중 양국의 문화교류가 활발해지면서 19세기 초, 한국문학의 외연으로 지금 중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 문학의 전신인 간도 문학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한국 근대소설의 한 장을 보충하기에 충분한 의의를 갖고 있다. 그러나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간도 유이민 문학 연구와 중국인 이미지에 관한 연구는 통시적으로나 공시적으로 그 영역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간도 유이민 문학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이미지에 대한 분석이 체계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작중 인물의 유형으로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일제강점기 간도배경 소설에 나타난 중국인 이미지에 대하여 간도 역사의 체험자이자 간도 문학의 창출자인 작가의 체험적 신분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 3. 연구 범위와 방법

우선 이 연구는 국권이 제국주의 침탈을 유린되고 있던 일제강점기인 1910년부터 1945년까지를 시간적 범주로 설정하였다. 한국인이 간도로 대규모 이주해 그 곳에서 형성된 ‘망명문단’은 주로 이주민과 식민지 피지배인이라는 이중의 고통 속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정착해 나간 조선 유이민들의 삶을 문학작품으로 재현해 내었다. 이것은 오늘날 중국조선족 문학의 본격적인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문학은 일제시기 한국 문학의 연장이자 중국 조선족 문학의 시작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문학 작품에 나타난 중국인 이미지 또한 복잡하고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 연구의 대상은 간도란 공간을 배경으로 창작된 소설로 한정하였다. 한국 학계에서는

19) 우충충, 「일제강점기 한국소설에 나타난 중국인 이미지 연구」, 산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지금 보편적으로 한국문학사의 연장으로서는 일제강점기의 ‘간도’와 ‘만주’에 초점을 맞추어 ‘간도문학’, ‘在中 조선인문학’, ‘在滿 한국문학’ 등의 용어들을 혼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중국 학계에서는 ‘만주국’이 일제의 괴뢰 정부라는 인식으로 ‘滿洲’<sup>20)</sup>를 부정하고 ‘東北三省’, ‘東北淪陷區’ 등 용어를 사용하면서, 중국조선족의 정체성을 강조하여 그 시기의 문학은 ‘중국조선족 문학’으로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만주국’의 역사적 실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중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중적 성격을 띤 ‘만주’라는 용어를 버리고 지리적 측면에서 한국학계에 인정된 ‘간도’<sup>21)</sup>라는 용어를 채택하기로 한다. 또한 간도배경 소설에 나타난 중국인은 광범위한 ‘중국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기에 ‘토민’, ‘만주인’, ‘다른 부락’ 등 당시 한국인들이 중국인으로 표현한 모든 대상을 포함시켰다.

이 연구는 역사전기적 연구 방법과 사회심리학적 연구 방법을 동원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역사전기적 관점이 작가의 간도 체험유형에 따라서 소설에 나타난 중국인의 이미지가 서로 어떠한 유사성과 차이점을 보이는지에 관한 분석이라면,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유사성과 차이점이 나타난 원인에 대한 분석하는 일이다.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시기별로 혹은 작중인물 유형에 따라 중국인 이미지를 분석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문학은 인생의 표현이자 현실의 반영이라고 볼 때 여기서는 작중 인물보다는 작가의 체험을 기준으로 논의한다. 일제강점기 간도배경 소설이 작가 유형은 다음과 같이 세 부류로 나누었다.

첫째, 직접적인 간도 이주의 경험 없이 여행, 유랑, 고찰 등 외래자의 안목으로 간도에 대해 슬픔의 현장, 애상의 현장으로 그려낸 流民작가의 경우 김동인(1900~1951)과 이태

20) 滿洲라는 명칭은 청나라 초기에 여진족 자신의 부족 명칭이었다가 그들의 거주지 명칭으로도 쓰이기 시작했다. 지명으로서의 만주는 처음에 요서(遼西)·요동(遼東) 지방을 지칭하였지만 곧 만주 전역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자리잡았다. 청말·중화민국 초(中華民國初)에는 만주가 ‘東三省(봉천성·길림성·흑룡강성)’으로 불렸다. 만주는 현재 중국에서 ‘동북지구’로 불리고 있는 요령성(遼寧省)·길림성(吉林省)·흑룡강성(黑龍江省) 등 3성을 지칭한다.

21) 『東三省政略』에 따르면 ‘間島’는 水田을 개간한다는 뜻으로 ‘墾島’라고도 하고 또는 북방에 있는 영토라는 뜻에서 ‘良島’라 불렀다고도 한다. 그리고 두만강의 물줄기가 사잇섬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해서 ‘間島’라고 칭했다는 의견도 있다. 이 이름은 공식적인 행정구역을 지칭하는 특정한 지명이 아니라 중국과 국경을 이루는 두만강과 압록강 북안 일대를 가리키는 말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두만강 북안은 北間島, 압록강 북안을 西間島라고 불렀다. 그리고 두 지역을 포함하여 북쪽의 간도 땅 또는 북쪽의 중국 땅이라는 의미로 북간도라는 이름도 널리 쓰여 왔다. 일제강점기 이후 지금까지 주로 한국에서 널리 불리고 있는 북간도가 넓게는 현재의 중국 동북3성(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좁게는 주된 한인 집거지인 연변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 내의 연길(延吉), 화룡(和龍), 왕청(汪淸), 훈춘(琿春) 등 4개 현(縣)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현재는 간도란 용어가 ‘만주 지역’이란 용어와 거의 구별없이 사용되고 있다. (표언복, 앞의 책, 39쪽 참조.)

준(1904~?)을 꼽을 수 있다. 여기서는 김동인의 「붉은 산」(1932), 이태준의 「농군」(1939)을 구체적인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둘째, 직접적인 간도 거주 경험이 있으나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조선으로 귀국하거나 이주 실패의 체험으로 간도 사회의 비인간적 실상을 밝히는 移民작가로는 최서해(1901~1932)와 강경애(1906~1943)를 선정한다. 최서해의 「탈출기」(1925), 「홍염」(1926), 「기아와 살육」(1926), 「이역원혼」(1926)과 강경애의 「채전」(1933), 「소금」(1934), 「마약」(1937) 등 중국인이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셋째, 이주민 2세로 태어나거나 오랫동안 간도에 거주하여 간도를 제2의 고향으로 간주하면서 강한 정착의식을 작품화한 定着民 작가로는 안수길(1911~1977)과 박계주(1913~1966)를 선정한다. 안수길의 초기 단편소설인 「새벽」(1940), 「벼」(1941), 「원각촌」(1942), 「목축기」(1943)와 박계주의 「모토」(1933), 「인간제물」(1938), 「사형수」(1942), 「육표」(1942) 등을 주로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시기에 중국에 이주하거나 여행 혹은 유랑했던 수많은 작가의 수<sup>22)</sup>를 고려하면 실향의 아픔과 간도 사회의 현장 재현을 소재로 삼아 작품 중에 중국인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등장시킨 이 작품들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중국인 인물을 등장시키고 비교적 전형적인 중국인 이미지를 형상화하였다. 이 작품들에 나타난 중국인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묘사되어 있는지,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에서 일관되게 평가되어 있는지를 고찰한 다음, 다른 작가의 작품과 비교·대조하면서 어떠한 차이점이 나오는지, 나아가 이러한 차이점은 작가의 신분과 시대상황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또한 작품의 작중인물과 주제를 분석함으로써 일제 강점기에 간도 유이민 사회의 사상적·민족적 갈등 양상을 밝히고 이러한 갈등을 작가에 의해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 간도 이주·정착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작품화한 간도배경 소설의 문학사적 위상과 의의를 도출할 것이다.

---

22) 일제강점기의 한국 작가 가운데 중국 체험을 한 작가는 매우 많다. 신채호, 박은식, 장지연, 이광수, 김동인, 현진건, 최서해, 염상섭, 심훈, 한용운, 조명희, 박화성, 채만식, 이효석, 이석훈, 이태준, 강경애, 김광주, 김광학, 김국진, 김귀, 김유훈, 김정혁, 김진태, 김진수, 김창걸, 김현숙, 박계주, 박종모, 송철이, 안수길, 엄시우, 윤도혁, 이경로, 이달근, 이범직, 이서향, 이순보, 이한인, 임천, 장조경, 진희곤, 조준철, 조학래, 주요섭, 천청송, 최명익, 한찬숙, 현경준, 홍용탁, 황건 등이 모두 간도 체험 작가들이다. (장춘식, 『해방전 조선족이민소설연구』, 민족출판사, 2004, 361~267쪽, 참조.)

## II. 간도배경 소설에 나타난 중국인 이미지의 양상

### 1. 민족감정의 작용과 타자화된 중국인 이미지

김동인과 이태준은 일제강점기 조선 문단에 큰 활약을 보여준 작가들이다. 그들은 간도에 거주한 경험은 없으나 간도배경 소설을 창작했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그들의 체험적 신분은 유민이고 그들의 간도배경 소설은 거의 간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작품에서 중국인 이미지는 대체 그 당시 조선인들이 생각하던 전형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김동인의 「붉은 산」(1932)에는 악질 중국인 지주가 등장하고 이태준의 「농군」(1939)에서는 토민, 순경, 군인, 정부, 콜리 등 다양한 중국인 이미지가 조선 유이민들을 박해하는 타자로서 묘사된다.

#### 1) 민족 울분의 자극자: 김동인의 「붉은 산」

「붉은 산」은 김동인이 1932년 4월 『三千里』에 발표한 단편소설이다. 이 작품을 통해서 1930년대 우국우민한 한국 문인들 가운데 이슈<sup>23)</sup>가 된 ‘간도’라는 특정한 공간에 대하여 김동인도 소설이라는 문학 형식으로 자신의 견해를 펼쳤다.

김동인의 생애에서 간도와 관련된 내용은 별로 없다. 1924년 『영대』를 준비하는 과정에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간도가 일부 등장하는데, “그는 여러 명의 기생에 빠지고, 마음만 내키면 동경을 산보하고 또한 안동(만주)에 가서 저녁을 먹었다.”<sup>24)</sup>는 김윤식의 언급이 그것이다. 아울러 김동인의 최고급 생활과 관련하여 “고급 담배 한 포를 구하기 위해 만주의 하얼빈까지 다녀왔다”<sup>25)</sup>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간도에 자주 드나들기는 했던

23) 1930년대에 들어서 만주사변(1931)의 발발로 인해 일본의 식민주의적 정책이 더욱 가혹해지고 민족말살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일제는 민족적인 문화 활동을 금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문학적 억압과 검열을 강화했다. 이와 같은 정치적 영향 때문에 조선 국내 문단은 진퇴양난의 경지에 처하게 된다. 어려운 상황에서 조선 국내에 변방과 이주 지대를 문제 삼은 작품은 부쩍 늘어났다. 이 시기에는 일제의 ‘만주국’ 정책과 식민지 정책에 따라 많은 문인들이 만주를 방문하기 시작해 간도 방문 혹은 유랑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 이주민들의 삶과 정착의지를 형상화한 소설들을 발표하였다.

24) 김윤식, 『김동인 연구』, 민음사, 1987, 229쪽.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1939년 입학수 등과 더불어 일본군대 위문을 위해 북지(北중국)를 다녀와 「전선기행」(1939)을 쓴 것을 제외하면 청년 시절에 간도에 갔음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붉은 산」을 발표한 해에 김동인은 서울 서대문구 행촌동으로 이사하여 서울 살이를 시작하였다. 이로부터 작고할 때까지 그는 서울 살이를 했기에 김동인은 직접적으로는 간도에서 장기간 생활한 경험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의 유일한 간도 배경 작품인 「붉은 산」은 간접적인 방식인 여행이나 유랑 체험을 토대로 창작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김동인이 간도배경의 소설을 쓸 때 체험적 신분은 유민인 것이 틀림없다. 경력뿐만 아니라 작품 서술 방법과 주제 재현에 있어서도 그는 유민 신분을 표출한다.

「붉은 산」의 발표 당시 부제는 ‘어느 의사의 수기’이다. 작가는 1인칭 관찰자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余’는 의학 연구자 만주를 순례하던 중 가난한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 ‘삶’이라는 별명을 가진 ‘익호’라는 인물을 만나게 된다. ‘삶’은 투전이 일쑤이며 싸움을 잘하고 트집을 잘 잡으며 색시에게 잘 덤벼드는 난봉꾼으로 주위 동포들에게 두려움을 주며 사람으로 대접 받지 못하는 인물이다. 다른 말로 하면 ‘삶’은 동네의 커다란 암종이다. 동네 노인과 젊은이들이 몇 번이나 모여서 그를 쫓아내기로 결의했지만 다들 말로만 하고 실제로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삶’은 태연히 이 조선인 동네에 살게 된다. 어느 날 동네 소작인인 송침지가 만주인 지주의 집에 갔다가, 그 해의 소출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맞아죽었다는 소식이 들려 온다. 송침지를 위하여 동네 젊은이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흥분했지만 역시 누구 하나도 앞장 서려고 하지 않는다. 그 때 누구에게도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한 ‘삶’은 다음 날 누구도 감히 하지 못한 행동을 해낸다. 그는 혼자서 만주인 지주의 집으로 찾아가서 복수를 하려다가 결국은 얻어맞고 만신창이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 죽어 가는 ‘삶’은 ‘余’의 품에서 붉은 산과 흰 옷을 찾으며 애국가를 불러 달라면서 죽는다.

1인칭 ‘余’는 “‘만주’의 풍속도 살필 겸 문명의 세례를 받지 못한 그들 사이에 퍼져 있는 병을 좀 조사할” 목적으로 만주에 간다. 이러한 작가가 스스로 ‘余’라고 부르는 액자소설<sup>26)</sup>로 인형조종술사로서의 작가의 모습을 노출시키는데, 이것은 작가의 주관을 통하여

25) 이상진, 「오만한 예술가의 초상, 김동인」, 『한국근대 작가 12인의 초상』, 옛오늘, 2004, 66쪽.

26) 액자소설은 외화는 작가 자신의 주관이 나타나고, 내화는 작가의 눈에 비친 대상인 인물을 객관적으로 그리는 형식의 소설이다. 즉 소설에서 최종적으로 말하는 자는 액자 부분의 화자 ‘나’이다. 그 ‘나’는 때로 사건에 참여하여 행위자가 되기도 하지만, 대개 사건의 주요인물에 대해 목격하고 들으며 진술한다. 김동

대상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외부 이야기가 내부 이야기를 보증함으로써 사실성을 높인다. ‘어느 의사의 수기’라는 부제도 내부 이야기가 윤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도, 그게 최종화자의 것이 아닐 수 있으므로 독자의 저항감이 완화되는 효과<sup>27)</sup>가 있다. 즉 작가는 유민으로서 간접적으로 얻은 경험을 냉혹한 말투로 화자의 직접적인 체험인 것처럼 독자에게 전달한다. 그 결과 독자들에게 이 작품은 ‘소설’이 아닌 ‘실록’이라는 착각을 일으킨다. 진실성을 확보하고 유량자의 신분으로 XX촌에 들어가는 ‘余’와, 작가 자신의 유민 신분을 오버랩되게 함으로써 외부인의 입장과 시각으로 조선 이주민 동포들의 불행한 삶을 그려 내는 효과를 거두었다.

살풍경한 만주…… 그 가운데서 살풍경한 살림을 하는 중국인이며 조선 사람의 동리를 근 1년이나 돌아다니다가 비교적 평화스러운 이런 동리를 만나면 그것이 비록 외국인의 동리라 하여도 반갑겠거든 하물며 우리 같은 동족의 동리임에랴.<sup>28)</sup>

‘余’에게 만주리는 공간은 살풍경한 곳이다. ‘살풍경한’ 느낌은 단순히 겨울이라는 추운 날씨나 만주 벌판에 산조차 볼 수 없다는 그런 풍경에서 받은 것이 아니다. 화자인 ‘余’에게 만주는 나라 잃은 동포들의 고난과 역경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비교적 평화스러운’ 조선인만 사는 동네에서도 안팎으로 우려와 재난이 잠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의 우려는 ‘삶’이다. 그러나 이주민 동포들에게 암적인 존재인 그는 마침내 동포를 위해 자기희생을 완성함으로써 나쁜 인간에서 민족의 義士로 승화된다. 內憂인 ‘삶’은 만주 땅에서 선량하게 살고 있는 조선인들의 최종 문제가 아님을 확인하게 된다. 이 작품에서 외부의 재난이란 두 사람의 죽음을 초래한 ‘만주국인 지주’이다. 직접적인 묘사는 없지만 ‘송첨지 사건’에서 살인범이라는 신분으로 등장한 만주국인 지주는 조선 소작인을 함부로 학대하는 반동적인 그림자 인물이다.

송첨지라는 노인이 그해 소출을 나귀에 실어가지고 만주국인 지주가 있는 촌으로 갔다. 그러

---

인의 단편소설에 즐겨 사용된 시점의 유형으로, 「배따라기」, 「광화사」, 「송첨지」, 「붉은 산」, 「죄와 벌」 등 거기에 해당된다.

27) 최시환, 「김동인의 시점과 시점론」, 『문학사와 비평』 8집, 문학사와 비평학회, 2001, 34쪽.

28) 김동인, 「붉은 산」, 『김동인 단편 전집』 2, 가람기획, 2006, 24쪽. 이하 「붉은 산」을 인용할 때에는 ()안에 작품명과 이 텍스트의 쪽수만 명기함.

나 돌아올 때는 송장이 되었다. 소출이 좋지 못하다고 두들겨맞아서 부러져 꺾어진 송침지는 나 귀등에 몸이 결박되어서 겨우 XX촌에 돌아왔다. 그리고 놀란 친척들이 나귀에서 몸을 내릴 때에 절명되었다. (『붉은 산』, 28쪽)

소출이 좋지 않다고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는 만주국인 지주는 틀림없이 조선 이민동포들에게 적대적인 존재이다. 김동인의 창작 기법은 ‘간결의 미학’을 바탕으로 하는데 ‘송침지 사건’은 줄거리만 엮어 놓은 시놉시스 같은 방식으로 만주인 지주의 ‘惡’한 이미지를 더욱 두드러지게 제시한다. 그 뿐만 아니라 복수하러 간 ‘삼’에게도 같은 형태의 폭력을 행사한 지주는 조선 유이민들에게 지극히 비인간적인 이미지의 인물로 간접적으로 재현된다.

이튿날 아침이었다.

여를 깨우러 달려오는 사람의 소리에 여는 반사적으로 일어났다.

삼이 동구 밖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 있다는 것이었다.

여는 삼이라는 말에 눈살을 찌푸렸다. 그러나 의사라는 직업상 곧 가방을 수습해가지고 삼이 넘어진 데까지 달려갔다. 송 침지의 장례 때문에 모였던 사람 몇은 여의 뒤로 따라왔다.

여는 보았다. 삼이 허리가 기억자로 뒤로 부러져서 밧고랑 위에 넘어져 있는 것을……. 여는 달려가보았다. 아직 약간의 온기는 있었다.

……

‘선생님, 저는 갔었습니다.’

‘어디를?’

‘그놈, 지주 놈의 집에.’(『붉은 산』, 30쪽)

‘붉은 산’은 주권을 상실한, 즉 독립을 잃은 조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흰 옷’은 백의민족인 韓 민족을 뜻하는데 주인공 ‘삼’이 죽음을 맞이할 때 붉은 산과 흰 옷을 보았다는 것과 ‘나’에게 애국가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통해 마비된 국민들 가운데 여전히 조국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작가는 ‘삼’의 죽음인 ‘내 우’의 소멸로써 ‘외환’인 중국인 지주에게 조선 동포들의 민족 적개심을 일으키는 목적을 드러낸다. 그런 점에서 김동인의 『붉은 산』의 창작초점은 민족의식이다.

김동인의 ‘민족’에 관한 견해를 백철·조연현은 ‘민족주의 계열’, ‘민족주의적 경향’이

라는 등의 용어로 분류하고 있다. 김동리도 ‘민족의식의 주축’으로 분류한다.<sup>29)</sup> 그러나 김동인이 과연 투철한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하다. 강인숙은 “감옥에 갇혔을 때 시원한 공기만 마실 수 있다면, 처자도 조국도 팔 수 있을 것 같다고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한다.”<sup>30)</sup>며 김동인의 민족의식이 그만큼 희박했다고 주장하였다. 김동인의 작품들에서 「붉은 산」과 같은 민족주의 계열의 작품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그의 작품에서 같은 민족주의 계열의 소설은 「송침지」·「주춧돌」·「亡國人記」·「續亡國人記」뿐인데 이 작품들은 모두 8·15 광복 이후에 발표된 것들로 작가의 말년에 해당된다. 광복 이전에 그의 민족주의 경향 소설은 「붉은 산」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이광수의 ‘계몽주의문학관’을 철저히 비판한 김동인이 「붉은 산」이라는 민족적이고 계몽적인 작품을 썼을까? 이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에는 ‘만보산 사건’의 영향 때문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다.

1931년 4월 16일 중국 장춘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郝永德은 長農稻田公司를 설립하고 伊通河 동쪽 삼성보 일대의 황무지 15만평을 중국인 蕭翰林 외 12가구와 함께 10년간의 조차계약을 맺는다. 이 계약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郝永德은 정부의 허가를 받기 전에 조선인 이승훈 등 8인과 10년간 재계약을 맺는다.

이를 모른 채 이승훈은 계약 절차로 조선 농민들을 이주시키고 곧 수로 작업에 들어간다. 수로 건설로 인한 농지의 침수 피해를 우려한 중국 농민들의 항의가 뒤따르자 중국 경찰은 조선 농민들에게 현지에서 떠날 것을 통보한다. 그러나 조선 농민들은 수로 개간을 강행한다. 1931년 6월 말에 이르자 수로는 거의 완공 상태에 이른다. 그런데 이 시기에 중국 농민들이 수로를 매몰하자 조선 농민들과 중국 농민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 경찰이 출동하여 총격전을 벌이게 된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조선과 중국 양국 농민 간의 충돌 사실이 곧바로 언론을 통하여 알려지면 서 조선에서는 ‘華僑폭행사건’<sup>31)</sup>이 발생하기에 이른다.

29) 표연복, 앞의 책, 155쪽.

30) 강인숙, 『김동인 작가의 생애와 문학』, 건국대학교출판부, 1994, 12쪽.

31) 만보산 사건의 왜곡된 보도로 인해 조선에서 1931년 7월 3일 맨 처음 인천에서 華僑 습격사건이 일어났고, 그 뒤에 서울과 평양 등 전국 각지에서 華僑 배척사건이 잇달아 전개되었다. 이를 ‘排華 사건’으로 따로 분리해서 말하기도 한다.

피는 물보다 겉다. 동포는 나의 동포이다. 국제주의가 선구자의 머리에 새벽처럼 밝아오고 사해동포주의가 선량한 사람의 가슴에 꿈같이 어리었다 하더라도 부대끼고 들볶이어 살 수 없는 가장 친근한 혈연적, 동적적의 피 끊는 동류애가 아니고서는 남으로 알 수 없는 것이다. 거듭하는 수난의 속에 시달리고 넘어지려 하는 재만 100만 동포의 신상에 관하여는 누구보담도 조선이천만 역내에 있는 대중이 가장 큰 동류의식과 연대적 책무감과 또한 상호부조적 정열 의지 및 정책을 가져야 할 것이다. (...중략...) 동족애에 켜키는 조선인 대중이여! 그 이에 감함이 없는가? 그의 대책은 절무요, 그의 생존권 옹호의 인도적 대의는 드디어 단념하고 말아야 할 것인가?<sup>32)</sup>

‘만보산 사건’에 대한 기사는 수십 년간 억압을 당한 조선 내지 문인은 물론 일반 민중들까지 민족적 분노를 새삼 솟아오르게 하였다. 「붉은 산」도 이러한 사회 분위기 아래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김동인에게 「붉은 산」은 ‘만보산 사건’에 대한 자극물이자 우연성을 지닌 작품이다. 그에게는 조선 내지의 다수 문인들처럼 간도라는 공간은 동족의 수난 장소일 뿐이고 불행을 당한 조선 이주민들은 외적 시선에 의한 동정과 연민의 대상인 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김동인은 순간적으로 민족적 울분이 북받침에 따라 자신의 청년 시절에 잠시 유민으로서 체험한 간도에 대한 기억과 연관하여 소설을 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김동인은 간도 사회의 구체적인 상황, 현지 중국인과 이주 조선인 사이의 갈등 및 수전 개간의 구체적인 문제, 간도의 조선 유이민에 대해 가졌던 일본의 태도나 역할 같은 일들에 대해 세심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33)</sup> 이로 인한 제재의 부족은 단순히 줄거리를 늘어 놓는 형식을 취하게 함으로써 소설의 핵심적인 모순 또한 지나치게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소설에서 XX촌의 조선인 동리는 “비록 모두가 중국인의 소작인이라 하나 사람들이 비교적 온량하고 정직하며, 장성한 이들은 그래도 모두 『천자문』 한 권쯤은 읽은 사람들이었다.”(「붉은 산」, 24쪽) 이와 반대로 생명을 멸시한 현지 만주인 지주는 ‘살풍경한’ 만주 땅에서 ‘살풍경한 삶’을 살고 있어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이야기의 시작에서 부정적인 인

32) 「사설:痛心할 재만동포의 운명- 면밀을 요하는 대우호 대책」, 『조선일보』, 1931.7.4 ; 이상경, 「1931년의 ‘배화 사건’과 민족주의 담론」, 『만주연구』 제11집, 만주학회, 2011, 98쪽에서 재인용.

33) 차성연, 「이주문학에 나타난 타자 재현의 문제 -「소금」과 「붉은 산」의 ‘재만 조선인’ 재현을 중심으로」, 앞의 논문, 437쪽.

물로 등장한 ‘삶’은 마지막에 죽음을 통하여 사람 ‘정익호’로 변신하는 설정을 하는 데 반해, 두 번이나 조선 이주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중국인 지주에 대한 간결한 묘사는 최악의 표상으로 그려진다. 善과 惡의 대조적 이미지를 단순하게 그려낸 것이다. 조선 동포들은 선의 대변자이고 횡포를 자행하는 중국인 지주는 악의 화신으로 소설의 갈등 양상을 설정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인 이미지에 대한 묘사는 김동인의 대표작인 「감자」에서도 나타난다. 소설 배경이 간도가 아니지만 중국인 왕서방은 악인 계열에 속한다. 왕서방은 주인공인 복녀를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인물이고 끝내 그녀를 죽이는 살인범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붉은 산」과 달리 「감자」에서의 민족감정은 분명하지 않다. 타자로서 등장한 왕서방은 악한 인물임이 틀림없으나 역설적으로 그는 한국에서 이미 지배권을 상실한 청나라의 유민이고 보잘것없는 ‘되놈’에 불과하다. 그 뿐만 아니라 성격 측면에서 볼 때 복녀는 왕서방보다 강자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창녀에 불과하지만 왕서방 앞에서는 언제나 기세가 등등하다. 마지막 장면에서 낫을 먼저 든 것도 복녀다. 결과적으로 ‘목으로 피를 쏟으면서 꼬꾸라진’ 것은 복녀지만 살의는 복녀 쪽에 먼저 있었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김동인은 민족의식을 강조한 것이 아니다.<sup>34)</sup> 비극을 초래한 외국인으로서의 왕서방이라기보다는 복녀 자신이다. 여기서 왕서방이 외국인이라는 신분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를 일본인이나 조선인의 신분으로 등장시켜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작가가 중국인으로 왕서방을 형상화하게 된 이유 또한 조선의 지식인들이 지닌 중국인에 대한 굳어버린 인식 즉 고정관념의 작용으로 본다. 사회심리학에 의하면 집단 적대의 인지요소인 고정관념들은 어떤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범주의 사람들이 함께 갖고 있는 개인적 속성들에 관한 신념들이다.<sup>35)</sup>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중국인에 대한 가장 보편적 고정관념들은 그들이 잔인하고 적대하는 야만인들로 제시되었던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위에 분석한 바와 같이 「붉은 산」은 김동인이 광복 전 그의 유일한 간도배경 소설이고 민족감정에 초점을 맞추어 창작한 작품이다. 소설에는 직접적인 묘사는 없지만 ‘송첨지 사건’에서 살인범으로 간접적으로 등장한 중국인 지주는, 조선 소작인을 함부로 학대하는 반동적인 인물이다. 소출이 좋지 않다고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는 중국인 지주는 조선 유이민의 위협적인 타자 존재다. ‘만보산 사건’의 일시적인 자극으로 「붉은 산」을 창작한 김

34) 강인숙, 앞의 책, 63쪽.

35) 홍대식 편저, 『사회심리학』, 박영사, 2007, 709쪽.

동인은 일제강점기 한국 소설에 적지 않게 등장한 전형적인 타자로서의 중국인 지주 이미지를 그려냄으로써 조선 사람에게 민족적 울분 자극시켰다. 이것이 작가의 체험적 신분의 제한적인 입장에서 과도한 민족감정을 드러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김동인뿐만 아니라 소설의 배경인 간도와 멀리 떨어져 있는 조선 내지 지식인들이 지녔던 보편적인 의식일 수도 있다.

## 2) 자민족 중심 시각의 타자: 이태준의 「농군」

「붉은 산」과 같이 ‘만보산 사건’을 제재로 창작된 이태준의 「농군」(1939)도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김동인의 지극히 간결한 서술 방법과 달리 이태준은 사건의 시말을 토대 삼아 더욱 구체적인 내용으로 창작하였다. 이야기에 나타난 중국인 이미지도 김동인의 「붉은 산」에서의 간접적 출연과 달리 다양하고 직접적인 작중인물을 통해 구현된다.

소설은 봉천행 열차 안의 풍경 묘사로부터 시작된다. 윤창권 일가는 고향의 척박한 환경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 얼마 되지 않은 가산을 정리하고 ‘만주’로 이주한다. 이른바 ‘장자위푸’라는 조선 집단촌에 정착하여 고향 사람들의 도움으로 300원을 주고 황무지 15상을 마련한 다음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조선 농민들은 힘을 합쳐 30여 리 떨어져 있는 伊通河에서 물을 끌어 들여 황무지를 水田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때 윤창권은 중국인 苦力を 샀전으로 30원을 부담하고 고용한다.

쿨리들은 눈만 피하면 피를 피웠다. 우묵한 양지쪽에 앉아 이를 잡지 않으면 조을고 있었다. 빨리 하라고 소리를 치면 그들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마주 투덜대었다.<sup>36)</sup>

공사는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 이 작품에서 ‘토민’으로 표현된 중국인들은 조선 농민들의 수로공사로 인해 자기네 밭이 모두 침수되어 농사를 못 짓게 될 것을 우려한다. 그래서 그들은 조선 농민을 방해한다.

36) 이태준, 「농군」, 『이태준전집 2 단편·희곡』, 깊은샘, 1988, 98쪽. 이하 「농군」을 인용할 때에는 ()안에 작품명과 이 텍스트의 쪽수만 명기함.

그들은 더리는 이쪽으로 물러오고 더리는 동네로 들어간다……앞을 툇 막아서더니 쪽 에워싼다. 까울리 까울리방즈(高麗, 高麗棒子<sup>37</sup>), 어찌구 한다. 조선사람이냐고 묻는 눈치다.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니까 한 자가 버러나서며 창권이 잡은 삽을 나꿔챈다. 창권은 기운이 부쳐서가 아니라 얼떨결에 삽자루를 놓쳤다. 삽을 빼앗은 자는 삽을 번쩍 쳐들고 창권을 내려치려 한다. 창권은 얼굴이 퍼렇게 질러 뒤로 물러났다. 창권에게 발등을 밟힌 자가 창권의 등덜미를 잡는다. 그러고는 일제 깔깔 웃어댄다. 삽을 들었던 자도 삽을 휘휘 돌리더니 발가운데로 팽개쳐 버린다. 그리고는 창권의 먹살을 잡고 붓도랑 내는 데로 끄는 것이다. (『농군』, 99쪽)

3년 전 ‘만주’로 이주해온 수로공사의 주역을 맡은 지도자인 황채심은 동네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설득하였으나 토민에게는 하나같이 소귀에 경읽기다. 토민들은 관청에 진정하여 순경을 출동시키기도 하고 돈으로 매수하여 군인들이 총을 메고 나오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 사람들은 縣 정부로부터 縣지사의 도장이 찍힌 거주권과 개간권의 허가장을 내보였지만 그들은 그런 관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처럼 관청문서를 무시하고 덤볐다. 황채심은 군인 두목 앞으로 나가 자초지종을 간곡히 사정하였으나 그들은 다음과 같은 소리만 한다.

“타우첸바(돈내냐)(掏钱吧)”

“너문 구냥 화칸(너희 딸이 이쁘다)(你们姑娘好看)” (『농군』, 102쪽)

황채심은 할 수 없이 진정서를 꾸려 현정부에 진정하러 장춘으로 간다. 그러나 가는 바람마다 돌아오지 못한다. 군인들이 나와 총을 쏘는데 순경들에게 끌려 갔다가 돌아온 황채심은 조선말로 조선 이민들을 격려한다. 이를 눈치 챈 순경들이 그를 때리고 다시 잡아간다. 결국 되든 안 되든 이민자들은 어두운 밤에 물을 끌어 올리기로 최후의 결정을 한다. 새벽녘에 몇 사람이 총을 맞아 희생된 대가로 수룡 물이 흘러오게 되었고 수로공사는 드디어 성공한다.

수전 경작을 할 줄 모르는 중국 토민들에게 ‘선진문화’를 가르쳐준다고 했으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은 무식하게 그려진다. 함부로 조선 사람을 때리는 그들은 야만인이며

37) ‘棒子’는 방망이의 중국어 표현이다. 일제강점기에 중국 동북지방에 이주해 온 조선인 중에서 일본의 사주로 중국 토착민들에게 악행을 행하는 조선 유이민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집에서 부녀자가 빨래할 때 사용하는 방망이를 무기로 한다. 이로써 ‘棒子’는 중국 사람에게는 일본인의 앞잡이인 조선인을 비하하는 지칭이 된다.

뇌물을 모아 바쳐 순경과 군인을 동원한 그들은 비겁한 무리이다. 게다가 법을 무시한 순경과 총을 메고 사람의 목숨을 위협한 중국 군인도 역시 악의 상징이다. 뇌물을 받고 진정하러 간 조선 사람을 오히려 감금한 공안국장과 縣지사도 악역을 맡고 있다. 심지어 같은 반궁한 삶을 버티는 무리인데도 돈을 받고 눈만 피하면 피를 피운 중국 쿨리도 게으름의 대표로 등장한다. 따라서 중국 토민, 순경, 군인, 관헌 그리고 쿨리까지 소설에서 조선 이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절대적인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반대로 주인공인 조선 이민 윤창권은 순박하고 용기가 많고 의지가 강한 성격을 가진 인물로 나타난다. 전반부에서는 단지 순진하고 효심이 두터운 청년으로만 묘사되지만, 후반부에서 토민의 행악에 맞서 용감하게 싸우며 수로공사에 온갖 힘을 다 쏟는 강한 의지의 인물로 그려진다. 마을 리더인 황채심도 수전 개간의 성공을 위해 분주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더라도 의연히 악의 세력과 맞서 동포들을 격려하는 정신적 지도자다. 그는 지식, 통찰, 영지, 직관과 함께 선의, 신속한 선행 등의 도덕적 특질을 겸비한 인물이다.

이 작품의 갈등은 윤창권으로 대표되는 순박한 힘과 토민으로 대표되는 잔인한 힘 사이에서 전개된 두 힘의 대결에서 결국 순박한 힘이 승리한다는 결말을 맺는다. 이 소설은 서간도 이주 농민들의 끈질긴 생명력과 불굴의 의지를 주제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설은 식민지 암흑한 현실에서 대항의식과 묘사방법에 있어서 가치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김동인과 같은 외적 시선으로 창작된 이 소설은 작가의 이민 현장에 대한 서투른 파악과 자민족중심주의로 발생한 중국인에 대한 편견이 폭로된다.

자민족중심주의는 내집단이 모든 것의 중심이며 모든 외집단들보다 우수하다는 신념을 일컫는다. 따라서 내집단은 가장 고결하고 우수하며 가장 훌륭한 가치들을 지니고 있다고 지각되게 되며, 외집단을 경멸할 만하며 비도덕적이고 열등하고 믿을 수 없고 범죄적이라고 지각되게 된다.<sup>38)</sup> 이태준은 조선 내지의 대부분 지식인들처럼 간도 유이민과 조선 내지 조선인들이 같은 韓민족이란 내집단으로 보고 중국인들을 적대적 위치에 놓인 외집단으로 간주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소설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조선인의 보편적 고정관념이 바탕 위에 과도한 민족감정이 작용함에 따라 중국인 이미지에 대한 편견으로 표출된 것이다.

기행문 「滿洲紀行」에 나타난 이태준의 만주 체험이 「농군」의 소재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설의 공간적 배경은 장자위푸로서 만보산 지역의 실재하는 마을이고 이태준이

38) 홍대식 편저, 앞의 책, 711쪽.

직접 답사한 마을이다. 이주해 간 조선 농민이 중국인 지주의 땅을 빌려 수로를 만들고 개간하는 과정에서 중국 관헌과 농민의 방해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설 속 사건의 큰 흐름도 일치한다.

만주의 장자위푸는 만주에서 가장 오랜 편이요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났던 곳이요 가장 먼저 조선인 손으로 황무지가 관류하게 된데가 만보산 일원이다.

……(중략)……

“반대운동이 어떻게 됐나요?”

“그 사람네들도 사실 우리가 넓이 이십여 척이나 되는 큰 수로를 내니까 단단히 서두르더군요. 여러백 명이 관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조선 사람 때문에 저이가 못살게 된다니까 관청에선 개간권을 허가해 주고도 무책임하게 모른다고 내뱉니다그려. 백성들은 조선사람들한테 양식두안 팔죠, 우물도 못 쓰게 하죠, 그때 생각을 하면…… 결국 우리도 사생 결단으로 대들 수밖에 없었습니다.……(중략)…… 토민들은 우리가 파는 붓도랑을 군데군데서 자꾸 매웁니다그려. 그러면 우린 또 달려가 그들을 죽일 듯이 으르대구 또 파냅니다그려. 말이 우습지만 사생 결단하는 투쟁이더랬습니다. 우린 밤에도 봤습니다. 나중엔 토민들이 다시 관청으로 가 야단을 쳐 결국은 중국 군대가 나와 총을 막 쏘게 됐습니다. 머리 위로 총알이 썩썩 지나가지만 우리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로 그냥 도랑 속에서 흠만 파냈드랬습니다.”

하고 주인은 그때 광경이 눈 속에 새로운 듯 땀 없는 이마를 몇 번 문지른다.<sup>39)</sup>

위에 인용문에서 보듯이 이태준은 만주 여행할 때 ‘만보산 사건’이 발생한 그 지역 이주민들의 피나는 정착 과정을 전해 들었다. 따라서 「농군」에서는 그러한 그들의 비참한 삶을 작품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확신할 수 있다.

「붉은 산」에서 김동인은 사건의 줄거리를 최대한 단순화하여 일시적인 울분으로 소설을 창작하고 민족적 공감을 얻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비해 「농군」은 한층 구체적으로 ‘만보산 사건’이 발생한 당시 조선 이주민들과 중국 현지 토착민 사이의 갈등을 묘사해 놓았다. 게다가 현실을 투사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와 군벌의 비겁하고 야만적인 모습까지도 표현하였다.

1932년부터 1945년까지 존재했던 만주국은 겉으로 내건 ‘五族協和’라는 명분을 두고 각 민족이 각각 다른 것을 상상하는 ‘동상이몽’의 공간이었다. 게다가 그 당시 만주에 살

39) 이태준, 「만주기행」, 『무서록』, 깊은샘, 1994, 177~178쪽.

던 조선인의 정체성은 일본 국민으로서의 ‘내선일체’와 ‘만주국’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오족협화’가 경쟁하는 이중적 입장에 있는 존재였다. 일제는 조선 유이민들을 이용해 중국 안에 그들의 세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따라서 중국 원주민들은 조선 유이민들을 일제의 앞잡이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중국 토착민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 되지 않은 공간과 생존 조건을 일제의 앞잡이인 조선 이민자들에게 양보해 주는 것은 너무나도 황당한 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중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모든 불공평 조약과 치외법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인식, 중국의 외교관계를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한 요인이라는 인식, 일제는 조선 이주민 보호를 구실로 철도지역까지 군대를 주둔시키려는 인식 등<sup>40)</sup> 중국 토착민에게 조선 이민자 또한 적대적인 존재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당시 복잡한 정치 상황은 작가에 의해 작품에서 모두 생략되었다. 중국 토착민에게는 생소한 농법이었던 수전 개간을 강행한 조선 이민자에게도 문제가 없지 않지만, 이러한 맥락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채 조선 이민자들이 중국 토착민에게 박해를 당한 이유는 오직 중국인의 무지와 야만으로 해석해 버렸다. 나아가 토착민뿐만 아니라 소설에 나타난 중국 순경, 중국 군인, 중국 정부, 쿨리까지 모두 탐욕과 공포의 화신으로 처리한 결과 중국인에 대해서는 개인 차원에서 민족 차원까지 악한 이미지를 고정시키게 되었다. 소설의 갈등 역시 순박하고 약한 자인 조선 이민자들이 끈질김과 강인함으로 악의 세력인 중국인들을 이기는 것으로 단순하게 처리하였다. 이러한 생명력과 의지력은 한국인의 민족성의 한 특징인 끈기와 맥을 강조함과 동시에 작가의 자민족중심 시각을 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내지의 지식인 입장에서 보면 망국민 처지에 빠지게 된 당시 조선 상황에서 「농군」은 韓민족의 끈질긴 특징을 자극하고 온 국민의 민족감정을 환기하는 데 유리하였다. 이 태준의 「농군」이 異민족과의 투쟁을 통하여 자기민족의 자존심과 민족성을 확보한 내용으로 ‘민족주의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인 학자의 견해도 이와 관련된다.

40) 이훈구는 중국인이 조선 유이민을 적대하는 이유를 다음 여섯 가지를 꼽았다. ①일본인의 주구라는 인식, ②일본인이 만주정책의 첩병 인식, ③조선 국내 이주민을 받아들일 공간으로서의 만주에 대한 인식, ④중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불공평 조약과 치외법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인식, ⑤중국의 외교관계를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한 요인이라는 인식, ⑥일본인이 이주민 보호를 구실로 철도지역까지 군대로 주둔시키려는 인식 등이었다. (이훈구, 『만주와 조선인』, 숭실전문학교 경영학연구실, 1932, 241~242쪽; 표언복, 『해방전 중국 유이민소설 연구』, 한국문학사, 2004, 341쪽에서 재인용.)

尙虛의 短篇에 있어서 社會問題는, 말하자면 背景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이점에 있어서 社會問題 또는 民族意識을 정면으로 나타내고 있는 「農軍」이 例外的인 작에 속할 것이다. ……李泰俊은 이 소설을 통해 民族主義 作家로서 完成을 이루었다.<sup>41)</sup>

그러나 이태준이 간접 경험으로 소설의 이주 현장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현지인의 시각을 간과한 것도 사실이다. 그 이유는 역사적 사실과의 불일치에서 찾을 수 있다.

「農軍」의 이야기가 조선 농민이 중국 군인의 총에 맞아죽는 장면으로 끝나지며, 이는 ‘만보산 사건’ 당시의 역사적 사실과 어긋난다. 이후에 ‘만보산 사건’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조선 농민들의 공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현지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경찰이 사격을 하며 중국 농민들을 강압적으로 해산시켰음이 밝혀졌다. 이태준이 1938년 4월 8일부터 21일까지 『조선일보』에 발표한 「이민부락 견문기」에 의하면 ‘만보산 사건’이 양측의 사상자 없이 마무리되었음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였음이 확인된다. 이태준은 사실을 알면서도 작품에서는 조선 농민이 총을 맞아 죽거나 다치는 것으로 처리하였던 것이다.

또한 소설의 시작 부분에 ‘이 소설의 배경이 만주이며 그전 張作霖 정권 시대임을 밝혀둔다’고 제시한 점을 주목할 될 부분이었다. 이렇게 언급된 소설의 시대 배경은 張作霖<sup>42)</sup>이 대원수가 된 1920년대를 의미한다. 그가 굳이 작품 속 사건의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유는 「農軍」이 ‘만보산 사건’이나 ‘만주국’ 건국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작가가 애써 일본과 무관한 것처럼 작품을 형상화한 의도로 해석함으로써 「農軍」은 “‘만주경영’이라는 제국주의의 새로운 흐름에 편승한, 다시 말해 당대의 ‘국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한 소설이며, 그러한 사정을 떠나 소설 자체로 보아도 지극히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작품”<sup>43)</sup>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소설은 “사건들을 단순한 기록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재창조하여 미적 세계로 승화시켰을 때 예술가로서의 가치를 획득하게 되는 것”<sup>44)</sup>을 고려하면 「農軍」의 줄거리가 ‘만보산 사건’의 ‘사실적 합치’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이 작품이 오죽협화론에 부응한 국

41) 三枝壽勝, 「李泰俊作品論」, 九州大學部 文學部, 1980, 33쪽.

42) 張作霖(1873~1928)은 중국 봉천 군벌의 통령이었다. 마적 출신으로 관내에서 출병, 오패부 등과 항쟁하고 奉直전쟁을 벌였다. 27년 대원수가 되었으며 북벌군 진공으로 퇴각해서 봉천으로 귀환 중 열차에서 일본군에 의하여 폭살당했다. 친일을 주장하여 일본의 도움을 많이 받은 인물이다.

43) 김철, 「몰락하는 신생 - ‘만주’의 꿈과 「農軍」의 오독」,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책세상, 2006, 481쪽.

44) 송백현, 『한국근대역사소설연구』, 삼지원, 1985, 14쪽.

책소설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아귀가 맞지 않는다. 이는 오히려 1930~1940년대의 억압적 식민지 상황과 살벌한 검열을 피해 조선 농민들의 현실을 알리고자 이태준이 선택한 하나의 서사전략이라 볼 수 있다. 그 결과 그는 이대로 작품에 나타난 관청이나 순경, 군인들이 일본 또는 일본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단지 중국인이 조선 이민들에 대한 횡포와 張作霖 정권의 폭정에 대해 폭로할 수 있었다. 특히 친일되었던 장작림 정권의 폭정에 대한 폭로는 일제의 폭정에 대한 폭로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두 민족 간의 충돌은 박해·저항으로 단순화시키는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작가가 외부적 시각으로 소설을 창작하였던 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상으로 이태준의 「농군」에 나타난 중국인의 이미지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이태준은 조선 내지의 다수 지식인들처럼 간도라는 지역의 역사적 복잡성과 민족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간도에서 살고 있는 유이민들을 조선 내지인과 다름없는 ‘민족적 공동체’로 본 것이다. 그의 창작 초점은 자민족의 민족성을 보존하는 데에 놓여 있다. 따라서 김동인과 같이 ‘만보산 사건’을 제재로 창작한 「농군」에서는 토민, 순경, 정부, 쿨리 등 일반 평민부터 권력 계급까지 모든 중국인들은 조선 유이민들에게 모두 타자로 존재한다. 결국 개인 차원에서 민족 차원까지 중국인은 민족적 저항의 대상으로 만든 것이다. 이것이 중국에 대한 적개심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민족감정을 환기하고자 했던 이태준의 태도는 작가의 자민족중심의 시각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 2. 사회구조적 갈등관계로서의 중국인 이미지

1920년대에 들어 직접적인 간도 거주 경험을 토대로 창작한 이민작가들이 간도 유이민 문학의 장을 본격적으로 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이주자 내부의 시선으로 유이민들의 삶에 대한 현장 묘사에 집중한다.

내부적 시선의 소설을 통해 간도 유이민 현실을 보여 주는 측면에서 볼 때 최서해가 192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라면, 강경애는 193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라고 할 수 있다. 최서해는 간도에서 5년 안팎을 살아 왔고 그의 간도 체험은 작가 자신의 극빈 체험이면서 동시에 극빈에 시달리는 간도 유이민들의 체험이기도 하다. 강경애 역시 간도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자신의 일차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간도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들을 다수 발표하였다. 그러므로 최서해의 「홍염」(1927), 「이역원혼」(1926), 「기아와 살육」(1925)과 강경애의 「채진」(1933), 「소금」(1934), 「마약」(1937) 등의 소설을 분석함으로써 그 시대 간도 이민작가의 중국인 觀과 작가의식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 1) 횡포 일삼는 ‘가진 자’: 최서해의 소설

일제의 한국 식민지화 과정은 대체로 준비기(1905~10), 형성기(1910~19), 화유조정기(1919~31), 병참기지화 및 전시동원기(1931~45) 등으로 구분된다.<sup>45)</sup> 형성기인 1910년 대부터 조선인들이 대규모로 간도 지역에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거친 날씨나 척박한 토질 같은 자연환경적 조건뿐만 아니라 1909년의 ‘간도협약’, 1915년의 ‘滿蒙조약’, 1925년의 ‘三矢협정’ 등<sup>46)</sup>으로 이어지는 일본과 중국 당국의 이주 조선인에 대한 수탈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이국땅인 간도에서 형성된 조선 유이민 사회는 결코 ‘安息處’가 아니었다.

아울러 이 시기 간도를 배경으로 창작된 소설은 이러한 사회와 역사적인 상황과도 긴밀

45) 김운태, 『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 박영사, 1986.

46) 간도협약은 1909년 9월 청(淸)과 일본이 간도의 영유권 등에 관하여 맺은 조약이고 일본이 남만주의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신 간도를 청(淸)의 영토로 인정한다.

만몽(滿蒙)조약은 1915년 중국 당국과 일본이 남만주와 동부 내몽고 지역에서 일본인의 토지 소유에 관한 특권과 영사재판권 등을 규정하여 맺은 조약이다.

삼시(三矢)협정은 1925년에 만주의 한국 독립군 근절을 위해 총독부 경무국장 미쓰야와 만주의 경무국장 간에 체결한 협정이다.

한 관련성을 지니고 전개된다. 식민지 질곡에 밀려 많은 문인들이 간도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이주민들의 삶을 목격하고 자신이 이주민이 돼서 직접 체험한 사실을 소설화하기 시작한다. 관찰자의 처지에서 간도 이주민의 삶을 냉철하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선 이민자 신분으로 빈궁한 조선 이주민의 생활 현장을 재현하는 양상은 이 시기 한국 소설의 특징이다. 이중 간도에서 조선 유이민의 삶을 리얼하고 적극적으로 그려낸 최초의 작가는 바로 최서해이다.

최서해는 간도에 이주한 조선 이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자신의 체험을 토대로 하여 사실적으로 그려낸 작가로 유명하다. 그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가장으로서 극도의 가난에 시달렸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1918년 전후<sup>47)</sup> 살길을 찾아 간도로 이주한 그는 나무장사, 두부장사, 부두노동자, 음식점 배달꾼 등 온갖 밑바닥 생활을 다 경험하면서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의 간도 체험은 작가 자신의 극빈 체험이면서도 동시에 극빈에 시달리는 유이민 사회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체험은 일반적으로 ‘빈궁문학’이라 불리는 최서해 문학의 특성을 이루는 토대가 되었다. 그가 이 시기 韓민족의 가장 큰 문제였던 ‘빈궁’의 문제를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그리고 있는 점은 이 시기의 다른 작가들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그의 대표작인 「홍염」이 발표됐을 당시 주요한이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렸다.

小説 三十餘篇에 나타난 題材는 二年前의 文壇을 알던 우리로서는 그 變遷을 분명히 感覺할 수밖에 없다. 中流以上 階級の 三角戀愛, 離婚問題 - 거기서 墮落하여서는 軟文學의 「꼴타령」이 所謂 小説이라고 發表되는 作品 대부분의 題材이었다. 그러나 인제는 小說家들이 그것을 버리고 一層 貧困한 層團의 發掘調査나 煽動을 그 題材로 삼기를 즐겨하게 되었다.<sup>48)</sup>

즉 주요한은 1920년대부터 최서해의 작품 활동이 당시 중산층 계급의 연애와 혼인 문제를 다룬 대부분의 소설 제재에서 현실의 빈궁 문제로 발전하기 시작한다는 문단의 변화를 포착하였다. 임화<sup>49)</sup> 또한 최서해는 간도 지방의 궁핍한 삶을 작품화함으로써 등단과

47) 최서해의 만주 이주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김득수의 고증에 의하면 그는 1919년 12월 당시 상해 임시 정부 산하편집과의 서기직을 맡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최서해는 독립군이였다」, 『월간독서』, 1978.9.) 그러므로 1919년 무렵에는 이미 이주해 있었던 사실만은 확실하다. 표언복, 앞의 책, 114쪽. 참조.)

48) 주요한, 「取材의 傾向과 第三層文藝運動 - 新年號小說月評」, 『朝鮮文壇』, 1927.2, 52쪽.

49) 임화, 「朝鮮新文學史論序說 - 李人植으로부터 崔曙海까지」, 『조선중앙일보』, 1935.11.12.

더불어 소설계의 지형 변화를 선도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 가난과 질병, 억압에 짓눌려 다 못해 결국에는 타국으로 몰리게 되는 하층민들을 주인공으로 한 일련의 작품들은 ‘최서해적 경향’이라 불리며 신경향과 소설의 한 전형으로 자리매김된 바 있다고 평가하였다.

간도의 궁핍한 조선 유이민들의 삶에 대한 현장적 묘사에 집중한 최서해의 소설에는 1920년대에 조선 유이민들이 겪게 된 온갖 수난의 실상들이 다 드러나 있다. “중국인들의 횡포와 박해, 거친 날씨나 토질과 같은 자연환경적 조건, 마적이나 거짓 독립당들이 활개를 치는 불안한 치안사정, 게다가 제 동포를 못살게 구는 악질적인 유이민까지 광범위하게 문제 삼고 있었다.”<sup>50)</sup> 무엇보다도 심각한 수난의 요인은 중국인들의 횡포와 박해였다. 최서해는 누구보다도 이를 고발하고 경계하는 데 일관된 관심을 보였다. 그는, 대표작인 「홍염」(1927), 「이역원혼」(1926), 「기아와 살육」(1925)들에서 보듯이, 중국인들의 비정함과 잔인성을 드러내는 데 적극적이었다. 「기아와 살육」은 극도의 가난과 병에 시달리는 가족을 지켜보는 한 가정의 고통과 절망을, 「이역원혼」은 중국인 지주에게 정조를 유린당하지 않으려다가 이역에서 원혼이 되는 여인의 비극을, 「홍염」은 중국인 지주의 횡포에 대한 조선인 소작농의 분노와 저항을 그렸다.

먼저 「홍염」은 1927년에 『동아일보』에 발표된 소설로 중국인 지주의 횡포 문제<sup>51)</sup>를 다루고 있다. 소작인인 ‘문서방’은 중국인 지주인 ‘인’가에게 빚을 못 갚아 17살 딸인 ‘용례’를 맡겨두게 되었다. 문서방의 아내는 딸을 그리워하다 병을 앓게 되자 남편에게 딸을 데려오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인’가가 ‘용례’를 보내주지 않아 결국 아내는 한을 품고 죽어버렸다. 밤에 ‘문서방’은 ‘인’가의 집을 태워버리고 ‘인’가를 도끼로 찍어 죽였다. 그리고 불길 앞에서 그가 딸과 만나는 장면으로 소설은 끝난다.

소설에서 중국인 지주 ‘인’가는 인간성이 없고 잔인한 사람이다. 그는 “개기름이 번지르하여 핏발이 울울한 눈을 흉악하게 굴리”고, “검붉은 뺨은 성난 두꺼비 배처럼 불떡불떡한”<sup>52)</sup>다는 동작과 행동에서 그 자가 얼마나 포악한지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입만 열면 욕이 먼저라 이미지가 한층 더 나빠진다. ‘문서방’의 아내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딸

50) 표인복, 앞의 책, 141쪽.

51) 중국인 지주의 횡포를 시비하는 작품들은 최서해의 「토혈」, 「기아와 살육」, 「고국」, 「이역원혼」, 「미치광이」 등 외에 이광수의 「삼봉이네 집」, 김형준의 「강촌 사람들」, 김창걸의 「무빈골 전설」, 「소표」, 박항민의 「남풍」, 강경애의 「마약」, 박계주의 「애로역정」, 「인간제물」 등이 대표적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인 지주의 조선 유이민에 대한 박해는 구체적인 실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서 서술상황으로만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52) 최서해, 「홍염」, 박근 편, 『최서해전집 하』, 문학과지성사, 1987, 15쪽. 이하 「홍염」을 인용할 때에는 () 안에 작품명과 이 텍스트의 쪽수만 명기함.

을 한번 보고 싶다는 소원에 ‘웃음 소리’로 거절한 그는 ‘인륜이 없는’ 인물이다. 간도에 있는 중국인들은 조선 여자를 빼앗아 밖에 내보내지도 않고 그 부모에게까지 면회를 거절하는 이유가 “중국인은 의심이 많아서 그런 것”(「홍염」, 18쪽)이라고 작가는 밝힌다. 이와 비슷한 중국인 이미지는 「홍염」뿐만 아니라 최서해의 다른 작품에서도 빈번히 나타난다. 「이역원혼」에서 주인공 ‘형선’의 아내를 탐내는 중국인 ‘유’가와 「미치광이」에 비친 중국 지주의 모습도 같은 계열이다.

간도에 와서도 이날 이때까지 중국 사람의 소작인으로 별별 구박을 다 받으면서 겨우 목숨을 이어왔다. 다른 구박보담도 지주되는 중국사람 유가는 홀아비인데 그 녀석이 늘 고요한 데서 만나면 두 눈이 스투르 흐리고 누런 이빨을 드러내어서 병곳 웃으면서 수상히 달라붙는 꼴을 볼 수 없었다.

.....

불쑥한 광대뼈, 벌건 눈, 누-런 이빨...53)

이곳 밭임자는 모두 중국사람입니다. 그 되놈들이 어떻게 무지한지 제가 글렀더라도 작인의 비위에 맞지 않으면 작인의 벌어놓은 곡식을 빼앗고 주지 않거나 쫓거나 때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남몰로 죽이는 수가 흔합니다. 이렇게 머리를 디밀고 일하는 사람은 모두 조선 사람입니다.54)

이러한 ‘개기름이 흐르고 이빨이 누런’ 중국인 지주는 최서해의 작품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기 간도 배경소설에 나타난 현지 지주의 전형적인 이미지라 볼 수 있다. 중국 지주는 돈이 많지만 사는 집은 “거미줄이 얽히설키 서린 천장과 벽은 아궁이 속같이 까만데 벽에 붙여 놓은 三國風塵圖며 春夜桃李園圖 이리저리 찢기고 그을었다”(「홍염」, 20쪽)는 언급에서 보듯이 지저분한 모양이고 문명을 모르는 사람이다.

중국인의 횡포로 인해 조선 유이민들의 생활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어 가는 상황만이 아니라, 중국인이 키운 개조차 소작인에게 악행을 부리는 이야기는 최서해 작품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

53) 최서해, 「미치광이」, 광근 편, 『최서해전집 하』, 문학과지성사, 1987, 21쪽.

54) 최서해, 「이역원혼」, 광근 편, 『최서해전집 상』, 문학과지성사, 1987, 96쪽. 이하 「이역원혼」을 인용할 때에는 ()안에 작품명과 이 텍스트의 쪽수만 명기함.

「홍염」에서 ‘문서방’이 ‘인’가 집에 갈 때마다 ‘인’가 집의 울타리 안에 빙빙 도는 개들 사이를 통과하는 것은 ‘문서방’의 첫 번째 난관이다. 마지막에 ‘인’가가 ‘문서방’의 간청을 무시하고 ‘문서방’을 문밖으로 쫓아내고 ‘문서방’은 ‘인’가가 키운 개의 공격을 당하면서도 반항하지 못한다.

그는 분김에 한 마리 때려잡는다고 열린 돌맹이를 집어들었다가, 작년 가을에 어떤 조선 사람이 어떤 중국 사람의 개를 때려죽이고 그 사람이 주인에게 총 맞아 죽은 일이 생각나서 들었던 돌맹이를 헛뿌렸다. (「홍염」, 19쪽)

「기아와 살육」에서는 더욱 극한 상황이 그려진다. ‘경수’의 어머니가 중국인의 개에게 물려 죽는 극한 상황으로 묘사된다.

“...물 건네 중국 사람 집 있는 데루 가까이 오니 그놈의 집 개가 어떻게 짖는지! 워낙 그놈의 개가 사나운 개니까 미리 알아차리느라구 돌때기(돌맹이)를 찾느라구 옆에서 킁킁하는데 ‘사람 살리오!’하는 소리가 개소리 가운데 모기소리만치 들린단 말이야! 그래 최 도감하구 돌이 달아가 보니까 웬 사람을 그놈의 개들이 뜯겠지!...”<sup>55)</sup>

사나운 개에 대한 묘사는 개 주인인 중국인의 폭행을 암시하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아도 이국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조선 유이민들을 짐승을 동원하여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중국인의 비인간적인 이미지가 재현된다.

이와 대조로 최서해 소설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조선 이민자는 대체로 선량하고 소박한 인물들이다. 살아오는 동안 게으름 피우지 않고 꾀도 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항상 끼니를 걱정해야 하고 가족 중 하나가 병에 걸리기라도 하면 어쩔 수 없이 곤경에 빠지게 되는 인물들이다. 이러한 인물들의 유이민화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던 일제강점기의 궁핍한 현실에서 나름대로 전형성을 획득하고 있다. 그들을 핍박하거나 소외시키는 반동 인물들 곧 중국인 지주들은 다소 극단적으로 그려진다.

이는 전에 논하던 유민작가들의 작품에서 나타난 타자화된 중국인의 이미지와 동일하다. 악하고 인간답지 않은 면모를 가진 중국인들의 모습은 일제강점기 간도로 잠시 유랑

55) 최서해, 「기아와 살육」, 광근 편, 『최서해전집 상』, 문학과지성사, 1987, 96쪽. 이하 「기아와 살육」을 인용할 때에는 ()안에 작품명과 이 텍스트의 쪽수만 명기함.

하거나 취재해서 조선 내에서 창작한 유민작가와, 상당기간 간도 현지 거주 체험을 가진 간도 이민작가의 작품에서 매우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최서해의 「기아와 살육」에서 살인의 직접적인 원인은 ‘경수’ 어머니가 중국인의 개에게 물려 죽는 데에 있었지만, 이런 극한 상황을 맞이한 ‘경수’의 복수는 중국인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 상점, 경찰서 등 온 세상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경수는 머리가 멍하였다…갑자기 하늘은 시꺼멓게 흐리고 땅은 쿵쿵 꺼져 들어간다. 어둑한 구석구석으로서는 몸서리치도록 무서운 악마들이 뛰어나와서 세상을 깡그리 태워 버리려는 듯이 빨긴 불길을 활활 내뿜는다. 그 불은 집을 불사르고 어머니를, 아내를, 학살이를 자기까지 태워 버리려고 몰려 온다. 빨긴 불 속으로서는 시퍼런 칼 든 악마들이 불끈불끈 나타나서 온 식구를 쿡쿡 찌른다. 피를 흘리면서 혀를 가로 물고 쓰러져 가는 식구들의 괴로운 신음소리는 차마 들을 수 없어 뼈까지 저리다…

소리를 지르면서 그는 벌떡 일어섰다. 그의 손에는 식칼이 쥐었다.

‘모두 죽여라! 이놈의 세상을 부시자! 북마전 같은 이놈의 세상을 부시자! 모두 죽여라!’ (「기아와 살육」, 39쪽)

현실에 순응만 하던 주인공은 어머니가 중국인의 개에 물려 비참하게 죽자 그동안 억눌렀던 원한을 순간적으로 폭발시킨다. 그 원한의 대상은 주인공의 비참한 삶의 현실이고 세상의 불공평한 제도이다. “주인공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냉혹한 면모를 보이는 의사나 약국 주인들(「토혈」, 「기아와 살육」)은 돈의 논리에 따라서만 움직이며 빈궁한 사람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인물이다. 자신들의 봉급은 미리 당겨쓰면서도 직원들의 체임은 당연시하는 사장 등(「서막」)도 금전의 노예, 위악적인 인물로 그려져 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앞세우고 최소한 인륜성도 지키지 않는 중국인 지주(「홍염」)도 무산자의 반대편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부류에 속한다.”<sup>56)</sup> 다시 말하면 최서해 소설에서 중국인의 존재는 주인공인 ‘경수’가 고향을 떠나 이국 땅 간도에서 겪게 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의 일환이고 감정 폭발의 출구인 셈이다.

…그러면 죽어야 옳은가? 왜 죽어? 세상에 먹을 것이 없나, 입을 것이 없나? 입을 것 먹을 것

56) 박상준, 「최서해 소설 연구」, 문학사와 비평학회, 『최서해 문학의 제조명』, 국학자료원, 2002, 134~135쪽참조.

이 수두룩하지! 몇 놈이 혼자 가졌으니 그렇지. 있는 놈은 너무 있어서 걱정하는데 한편에서는 없어서 죽으니 이놈의 세상을 그저 두나? (『기아와 살육』, 32쪽)

위의 인용문은 주인공 ‘경수’의 혼잣말이다. 빈궁한 삶을 만든 요인은 사회의 부조리함에 있고,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분열은 불행을 일으킨다고 그는 생각한다. 주인공의 이러한 생각 즉 작가 최서해의 의식은 그의 다른 작품에서도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다. 「탈출기」의 경우 ‘김군’이란 친구에게 보낸 답장 형식으로 주인공 ‘박군’이 탈가한 이유를 진술하는 이야기를 통해 조선 유이민이 빈궁한 현실과 대결하는 근원을 한층 더 구체화한다.

—나는 여태까지 세상에 대하여 충실하였다. 어디까지든지 충실하려고 하였다, 내 어머니, 내 아내까지도……뼈가 부서지고 고기가 찢기더라도 충실한 노력으로써 살려고 하였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속였다. 우리의 충실을 받지 않았다. 도리어 충실한 우리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학대하였다.

우리는 여태까지 속아 살았다. 포악하고 허위스럽고 요사한 무리를 용납하고 옹호하는 세상인 것을 참으로 몰랐다. 우리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네들은 그러한 세상의 분위기에 취하였었다, 나도 이때까지 취하였었다. 우리는 우리로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어떤 험악한 제도의 희생자로서 살아 왔었다.(「탈출기」, 『최서해전집 상』, 22쪽)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누어진 세상의 부조리한 제도로 인해 조선 유이민들의 비참한 삶은 계속된다. 빈곤의 원인이 사회 제도에 있음을 깨닫게 된 주인공 ‘박군’은 마침내 현실에 대한 강한 반항의식을 가진 모습으로 묘사된다. 자신을 “불문곡직하고 수색하고 질문하면서 때리”(「탈출기」, 23쪽)던 중국 경찰들로 구체화기도 하지만 반항의 대상은 모순된 세상임이 분명하다.

위에 분석한 바와 같이 최서해의 소설에 나타난 중국인 이미지는 유민작가가 민족감정의 작용 하에 악한 중국인 이미지로 창작한 경우와는 초점이 다르다. 최서해는 일제강점기의 조선 소작인과 중국 지주의 대립에서 ‘중국’이란 나라 혹은 민족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지주’란 ‘가진 자’와, ‘소작인’이란 ‘못 가진 자’의 갈등으로 본 것이다. 그는 조선인의 불행의 근원은 사회의 불합리한 구조에 있다는 계급의식에 입각하여 창작하였다. 인간

성이 없는 악한 중국인 지주는 조선인들이 겪는 불공평한 세상의 온갖 어려움의 일환인 사회구조적 갈등관계로서 파악하였다. 이것은 작가의 빈궁체험에서 기인한다. 다시 말하면 최서해가 간도 이민 신분으로 ‘제도의 희생자’라는 의식을 서사화한 것은 작가가 소설에 나타나는 민중과 자신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최서해는 1901년 함경북도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서 한문을 배웠다. 그가 10살 되던 해에 아버지는 혼자 ‘만주’로 들어가서 독립운동을 했다. 그리고 1919년 전후 최서해도 간도로 건너가 5년 안팎의 기간 동안 가난한 생활을 한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문학에 대한 열정을 간직했다.<sup>57)</sup> 이러한 생애의 궤적은 그의 작품 「탈출기」의 주인공 ‘경수’와 흡사하다. 지식인으로서의 ‘경수’는 극빈의 고통을 시달리며 살기 위해서 ‘운들장이’ ‘나무장사’ ‘두부장사’ 등 열심히 일해도 빈곤은 날로 심해지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보이는데 이것은 곧 최서해의 개인 경험과 상통한다. 나아가 작가는 ‘경수’의 입을 빌려 자신의 체험을 통한 깨달음을 ‘민중적 의무’의 차원으로 일반화시키고 있다.

또한 소설 「홍염」에 등장하는 ‘문서방’ 일가도 전기적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최서해는 자신의 작품을 자평한 글에서 밝힌 바 있다.

나의 소설 「홍염」이란 것이 있다. 그 소설을 쓴 동기는 나의 丈母되는 분이 「홍염」에 나오는 「달리소」라는 北間島의 궁벽한 산골에서 돌아가셨다…(중략)…이와 같이 딸이나 사위를 죽을 때 애초차 만나 보지 못하게 되는 그 눈물겨운 원인이 어디있느냐. 모두 다 貧困 때문이었다. 貧困 때문에 그 분은 間島에 가셨고 出家女息을 만나지도 못하였고 貧困 때문에 窮死하신 것이다. 나는 여기에서 어떤 典型을 발견하였다. 즉 궁사하시는 장모를 통하여 一時代的 조선 사람들의 전형을 바라보았다.<sup>58)</sup>

최서해는 자신의 소설과 관련하여 “一豪假借 없이 자신이 체험한 사실을 토대로 썼”다고 토로했다. 이것은 바로 최서해가 주장한 “문예는 생활의 반영”<sup>59)</sup>이라는 신념의 실천이기도 하다.

57) 송현호, 「일제강점기 소설에 나타난 간도의 세 가지 양상」, 제8회 한국 전통문화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07, 34쪽.

58) 최서해, 「「홍염」과 「탈출기」」(『삼천리』, 1930.5), 『최서해전집 하』, 앞의 책, 320쪽.

59) “한 개의 작품이 있다는 것은 그 작품의 배후에 그 작품을 산출할 만한 생활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우리가 어떠한 문예품을 보는 때에 한 개의 문예품으로서만 보지 않고 그 문예품을 통하여 인류 생활의 한 국면을 보게 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최서해, 「문예와 시대」, 『동아일보』, 1929.7), 『최서해전집 하』, 앞의 책, 347쪽.)

작가의 체험적 이민 신분은 작품에서 작가 자신의 체험을 직관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동시대의 다른 작가보다 궁핍한 현실의 문제를 서사적 인식의 대상으로 일관되게 파헤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서해의 작품들은 ‘빈궁문학’, ‘체험문학’, ‘보고문학’ 등의 범주로 특성화되었다.

최서해는 간도에서 정착 실패로 다시 귀국하였다. 실제로 그의 창작활동도 주로 귀국한 후에 국내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방화·살인·도주·귀향 등으로 자신의 작품의 결말을 짓는 轉落的(하강적) 서사구조를 통해 정착에 실패한 이주민들의 생존을 문제로 삼는다. 독립운동의 좌절과 어려운 현실에 대한 극복 불가 등 작가의 내면 의식을 암시하는 「고국」, 「향수」, 「백금」 등의 작품에서 최서해가 간도 이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지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최서해는 고국을 떠난 조선 유이민들이 간도 지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 시종일관 창작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불행을 깨뜨리는 방식을 그는 두 가지로 표출했다. 하나는 극빈에 시달리던 「홍염」과 「기아와 살육」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극빈에 시달리는 일반 조선 유이민들이 간도 삶에 대한 절망으로 ‘살인’과 ‘방화’ 등 극단적 정신분열 증세를 나타내며 온 세상을 복수의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탈출기」와 「향수」의 주인공처럼 지식인으로서 사회의 부조리를 의식하고 義士(혹은 主義者)로 각성하며 민족운동의 길에 걸게 되는 방식이다. “일반 간도 유이민 대중의 선택이든 지식인들의 선택이든 최서해는 간도 생활을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음은 분명하다.”<sup>60)</sup> 이 작품들은 하나같이 유이민 생활에 대한 희망적 관점이나 밝은 전망을 보여 주지 못하고 암울하고 비극적인 모습으로만 그리고 있다. 개인적 분노와 자의적 행동은 간도 유이민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삶의 주제에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당시의 경향문학에 대해 “지주(혹은 자본주) 대 소작인(혹은 직공)의 대립, 압력에서 방화, 폭력으로 마칠 수 있는 천편일률의 형식”<sup>61)</sup>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였다.

최서해는 빈궁한 생활 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새로운 세계인 간도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1920년대의 韓민족의 암울하고 비참하기만 했던 삶의 실상을 자기 체험적 기록을 통하여 재현하였다. 5년의 간도 이민 체험을 바탕으로 고된 이주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준 것이

60) 표언복, 앞의 책, 125쪽.

61) 김동리, 「문학적 사상의 주체와 그 환경」, 『김동리 전집』 7, 민음사, 1997.

다. 민족 차원이 아니라 진정 밑바닥에 살고 있는 조선 유이민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점도 역시 작가 자신의 실제 경험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최서해의 소설은 ‘살아가야 하는 조선인’과 ‘빈궁한 현실’이란 갈등에서 출발하여 조선 유이민에게 불행한 삶의 근원은 불합리한 제도에 있다는 것을 밝힌다. 이러한 인식과정에서 소설에 나타난 반동인물인 중국인 지주는 자동적으로 악하고 비인간적인 ‘가진 자’의 이미지로 조선 유이민들의 복수 대상 중 하나가 된다. 따라서 최서해의 작품에서 중국인들은 조선 유이민들의 힘겨운 삶을 만들게 하는 근원이라기보다는 이주 과정에 겪게 된 여러 가지 고난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 2) 가해자 속의 공동 수난자: 강경애의 소설

간도 혹은 만주 유이민 현실의 소설적 인식이라는 측면에서만 두고 볼 때 최서해가 192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라면 강경애는 단연 193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라고 할 수 있다.<sup>62)</sup> 최서해가 1920년대에 간도를 무대로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韓민족의 비참한 삶의 현장을 고발했다면, 강경애는 1930년대의 한복판에서 그것을 이어 받았다. 백철은 강경애에 대해 “그 자신이 매우 어려운 해란강변 간도 생활을 경험하여 그 결과로서 작품에 일체가 되어 나타났다”<sup>63)</sup>고 하면서 최서해에 이어 그녀의 작품을 ‘빈궁문학’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녀는 1931년 『조선일보』에 단편소설 「과금」을 발표한 후 중국 龍井으로 가서 이민자 신분으로 생활하며 韓민족의 궁핍상을 비롯한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진실하고도 진지하게 그려냈던 작가이다.

간도를 배경으로 삼은 강경애의 소설로는 「그 여자」, 「채진」, 「축구전」, 「유무」, 「母子」, 「원고료 이백원」, 「번뇌」, 「소금」, 「어둠」, 「마약」, 「검둥이」(미완), 「지하촌」 등 13편이 있다.<sup>64)</sup> 그의 소설 가운데 「소금」과 「지하촌」이 중편이며 나머지는 단편이다. 이로서 강경애는 2편의 중편소설을 포함하여 20편의 단편소설 등 모두 22편을 창작한 가운데, 절반

62) 표인복, 앞의 책, 160쪽.

63) 백철, 「女流人物評(其九) - 姜敬愛論」, 『女性』 3권5호, 朝鮮日報出版社, 1938.5.

64) 강경애는 간도를 배경으로 삼은 「간도를 등지면서」, 「간도의 봄」, 「이역의 달밤」, 「간도」, 「두만강 예찬」 등 수필도 있다.

이상의 작품에서 간도를 배경으로 설정한 셈이다. 그녀가 평생에 남긴 작품 중 절반 이상이 유이민 현실을 적극적으로 그려낸 작품들이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간도 유이민의 현실에 대한 강경애의 작가의식을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강경애는 여러 편의 간도 배경 소설들에서 주요 인물들을 대부분 간도로 이주한 이주민들이거나 항일투사 또는 가족들로 설정한다. 자신들이 속한 사회에서 불안정한 존재로 자리잡고 있는 간도 유이민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그려낸 것이다.

대표작인 「소금」에서는 중국인 지주의 횡포가 구체적으로 묘사되었다. 이야기의 주인공 ‘봉염’ 어머니 일가는 ‘마치 끝도 없는 망망한 바다를 향하여 죽음의 길을 떠나는 듯’ 아픈 가슴을 안고 간도를 찾는다. 불행과 궁핍이 하늘의 무심함 때문이라 생각하는 ‘봉염’ 어머니에게 남편의 죽음이라는 또 예상치 못한 불행이 닥쳐오면서 수난이 시작된다. 남편은 중국인 지주 광둥<sup>65)</sup>에게 불려갔다가 공산당의 총에 맞아 죽는다. 남편의 장례가 끝나자 아들 봉식마저 집을 나가버린다. 살길이 막막해진 ‘봉염’ 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광둥의 집에 기거하다가 광둥에게 성적 유린을 당한다. ‘봉염’ 어머니는 집세라도 장만하리라 기대하고 살아가지만 봉식이 공산주의자로 처형되었다는 이유로 인해 광둥 집에서 쫓겨나고 만다. 그날 밤 ‘봉염’ 어머니는 비가 줄줄 새는 중국인의 집 헛간에서 홀로 광둥의 자식인 봉회를 낳는다.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남의 아이의 유모가 되어 근근히 살아가던 ‘봉염’ 어머니는, 보살핌을 받지 못한 봉염과 봉회가 열병으로 죽고 세상에 혼자 남게 되자, 남자들조차 하기 어려운 소금 밀수를 시작하다가 관원에게 붙잡히고 만다.

‘봉염’ 어머니를 극심한 가난과 여러 가지 수난으로 ‘소금 없는 심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불쌍한 조선 유이민의 대표로 본다면, ‘광둥’이라는 중국인 지주는 이러한 참경에 처한 그들에게 최소한의 살 길조차 막는 이미지의 소유자가 틀림없다. 최서해의 「홍염」에서 ‘문서방’의 아내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딸을 보여 달라는 간청도 거절한 인간성 없는 중국인 지주 ‘인’가에 비해 광둥은 자신이 유린하고, 자식까지 임신한 ‘봉염’ 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내는 등 더욱 냉정하고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인다. ‘봉염’과 ‘봉회’의 죽음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지만 남편과 아들을 잃고 갈 길이 없는 ‘봉염’ 어머니를 절망의 처지로 내본 것이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소설에서 광둥은 처음부터 이렇게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65) ‘광둥’은 ‘지팡주’와 비슷한 중국인 지주를 가리키는 일반 명사이다. 한자로는 ‘房東’이고 중국에 집 주인이 집의 동쪽에 거주하고 손님은 서쪽에 거주하는 풍습이 있다. 그러므로 광둥은 중국식 房東의 발음이며 집주인 또한 지주를 의미한다.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고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봉염’ 어머니는 지주인 팡둥에게 찾아가기로 한다.

해가 거의 저갈 때 그들은 팡둥을 찾아갔다. 그들의 용정에 발길을 돌려놓 때부터 팡둥을 생각하였다. 만일에 봉식이름 찾지 못하게 되면 팡둥이라도 만나서 사정하야 봉식이름 찾아달라고 하리라 하였던 것이다.<sup>66)</sup>

평소에는 팡둥에게 무서움과 증오의 감정이 있으면서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팡둥이 생각나게 하는 설정은 ‘봉염’ 어머니가 평소 팡둥에게 환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소작인으로서 팡둥에게 박해를 당했었지만 인간적으로 팡둥은 자신을 도와 줄 것이라고 믿고 간 것이다. 그리고 예상대로 팡둥도 눈을 크게 뜨고 반가운 뜻을 보이었고 집으로 들어오게 하여 차를 따라 권한다. 그 뿐만 아니라 그녀의 사정도 들어주고 친척의 유무까지 물어보면서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친척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친척 없어, 우리 집 있어. 봉식이름 찾아왔어 갔어”(『소금』, 360쪽)라면서 허락해준다. 그 후로부터 모녀는 팡둥 집에서 일을 해주며 그날그날을 살아간다.

팡둥은 날이 갈수록 그들에게 친절하게 굴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밤이 오래도록 그들이 있는 방에 나와서 이러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여주며 때로는 옷감이나 먹을 것 같은 것도 사다주었다. (『소금』, 363쪽)

이 내용만 보면 중국인 지주인 팡둥은 항상 인정이 많아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가난한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처럼 보인다. 이 때 가난한 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자에게 동정을 기대하고, 베푸는 호의에 감격하곤 한다. ‘봉염’ 어머니 또한 감격하여 밤 오래도록 잠들지 못하곤 한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일 뿐이었다.

갈 데가 없는 ‘봉염’ 모녀가 처음에 팡둥 집에 찾아왔을 때와 팡둥이 ‘봉염’ 어머니의 몸을 얻은 후에 소설에는 이러한 묘사가 있다.

그는 불쾌하였다. 저들은 오늘로라도 보내려면 돈이라도 몇 푼 집어줘야 할 것을 느끼면 당분

66) 강경애, 『소금』, 허경진·허휘훈·채미화 주편, 『강경애 전집』, 보고사, 2006, 361쪽. 이하 강경애의 작품을 인용할 때에는 ()안에 작품명과 이 텍스트의 쪽수만 명기함.

간 집에서 일어나 식히며 두어뒤 볼까? 하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었다. 팡둥은 약간 웃음을 띠었다.

(……중략……)

팡둥은 그들을 바라보자 곧 불쾌하였다. 그날 밤 그의 만족을 채운 그 순간부터 어쩐지 발길로 그의 엉덩이를 냅다 차고 싶게 미운 것을 느꼈다. 그 다음부터 그는 봉염의 어머니와 마주서기를 싫어하였다, 그러나 살림에 서투른 젊은 안해를 둔 그는 그들을 내보내면 아무래도 식모든지 착실한 일꾼이든지 두어야겠으니 그러자면 먹여주고도 돈을 주어야 할 터이므로 오늘내일하고 이때까지 참아왔던 것이다. 보담도 내모낼 구실 얻기가 거북하였던 것이다. (「소금」, 368~369쪽)

위에 인용한 팡둥의 속셈에서 그의 본질을 엿볼 수 있다. 겉으로 인정이 많고 따뜻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익만 따지는 인물이다. ‘봉염’ 어머니처럼 약한 자는 그에게 더욱 착취당하거나 흑사당하다가 내몰림당하게 되는데 특히 여성일 경우 성적 노리개로 희생되기도 한다. 「소금」에서는 ‘봉염’ 어머니가 성적 유린을 당하는 장면이 직접적인 묘사가 없지만, 「마약」의 중국인 ‘진서방’의 모습을 통해 팡둥의 잔인함을 보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약」에서는 아편쟁이가 된 남편이 돈 때문에 아내인 ‘보득이’ 어머니를 상점 주인인 중국인 ‘진서방’에게 팔게 되었다. 그 사실을 모르는 ‘보득이’ 어머니는 ‘진서방’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도망친다. 그러나 도망가는 길에 부상해서 자신의 아기를 만나지 못한 채 죽게 되는 슬픈 장면으로 소설이 끝난다.

중국인에 유린당한 ‘보득이’와 ‘봉염’ 어머니는 힘이 없는 연약한 조선 유이민 혹은 조선 여인 계열에 속한다. 반동 인물인 중국인 ‘진서방’은 지주는 아니지만 상점 주인인 ‘가진 자’로 역시 ‘팡둥’과 같은 속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소설에서 작가는 직접적이고 냉정한 말투로 ‘진서방’의 폭행에 대해 묘사하였다.

진서방은 그의 입술을 막아 소리를 치지 못하게한다. 땀이 쪼르르 흐르는 손에서 누린내가 숨을 통치못하게 쓸어들므로 까물어흔들었다. 벼락같이 쥐어박는 주먹이 우지근 소리를 내고 피가 주르르 흘러목을 적시운다. 진서방은 눈이 등잔통같아져서 무어라고 중국말로 투덜거리더니 시킵한 걸레로 입을 까막아버린다. 원입안은 가시를 물은 듯 그 끝이 코에까지 꿰어올라온 듯 흑흑턱을 채었다. 진서방은 허리띠를 글러 미친듯이 돌아가는손과 발을동인뒤 이마땀을 씨츠며 빙그레 웃었다. 피줄이서긴 저개눈깔같은눈엔 야수성이 득실그리고 씩씩그리는 숨결에 개비린내가

혹혹뽀뽀다. 퍼렁바지는 미끌어져 배살이징글스레 들어났고 느른침을 푹푹 흘리고 있다.(「마약」, 224~225쪽)

이 인용문에 나타난 ‘진서방’의 야수 같은 모습은 「소금」에서 그날 밤 문밖에 나가던 광둥이 획 돌아볼 때 ‘봉염’ 어머니가 느꼈던 ‘무어라고 형용할 수 없는 무서움’과 상통한다. 독자들은 강경애의 소설을 읽으면서 겉으로 친절하지만 속으로 간교하며, 미색을 탐하여 야수 같은 행위를 하며 자신의 자식을 임신한 여자와 어린 아이를 내쫓는 더할 나위 없이 악하고 비인간적인 중국인 이미지를 저절로 머릿속에 떠올리게 된다.

횡포를 부리는 중국인 이미지는 지주 광둥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중국 군대인 보위단, 자×단<sup>67)</sup>과 마적 그리고 ‘봉염’ 어머니 남편의 죽음을 초래한 중국 공산당도 그녀의 소설에서 조선 유이민들의 삶의 파괴자로 등장한다.

보위단들은 그들이 받는 바 월급만으로는 살 수가 없으니 농촌으로 돌아다니며 한 번 두 번 빼앗기 시작한 것이 지금에 와서는 으레히 할 것으로 알고 아무 주저 없이 백주에도 농민을 위협하여 빼앗군 하였다. 그러나 농민들은 보위단 뒤편으로 언제나 돈이나 기타 쌀을 준비해 두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한 것을 깨닫고 아무것은 못하더라도 준비해 두곤하였다. ... 그러나 시국이 바뀌이며 공산당이 쫓기어 들어가면서부터 자×단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었다. 그는 그의 손톱을 바라보며 몇 번이나 보위단들에게 죽을 번하던 것을 생각하며 그나마 오늘 까지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이 기적같이 생각되었다.

(.....중략.....)

...그저 그렇저렇 지날만 하였다. 그리고 반드시 부뜨막 앞에는 비밀토굴을 파두는 것이다. 그랬다가 아대서 총소리가 나던지 개 소리가 요란스레 나면 온 식구가 그 움 속에 들어가서 뿔일이 든지 있군 하였다. 그리고 옷이나 곡식도 이 움에 다 넣고서 시재 입은 옷이나 먹을 양식을 조금씩 꺼내놓고 먹군 하였다. 말할 것도 없이 보위단이며 마적단 등이 무서워서 이렇게 하군 하였다. (「소금」, 353쪽)

위의 인용문은 당시 간도(만주)의 혼란스런 정세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蔣介石 국민당이 장악했던 서남지역에 비해 대지주 중심의 봉건군벌들이 난립했던 지역인 간도는 1920년대 장작림 체제에 있었다. 이들의 장악력은 안정적이지 못해서 각 지역별로 정책

---

67) ‘자×단’은 ‘自衛團’으로 판단된다.

상 편차가 심했다. 특히 조선인에 대한 정책은 자주 바뀌었다. 1932년 만주국이 수립되었지만 수립 주체인 관동군의 영향력은 철도부설지와 일부 도시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만주 농촌지역 및 오지에서는 각종 세력들이 양민을 학대하며 게릴라전을 펼쳤다.<sup>68)</sup> 이러한 상황에서 보위단과 공산당, 자위단에게 번갈아 돈이나 식량을 바쳐야 했던 만주 지역 조선농민들의 고단한 삶의 현상이 이 소설에서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봉염’ 어머니가 일제 식민주의 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낮은 이역으로 떠나, 가부장제도의 억압을 받으며 ‘가진 자’ 계급의 농락을 당한 하위주체<sup>69)</sup>에 있다. 즉 간도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일제강점기의 민족 억압과 중국인 지주 팽등으로부터 받았던 성적 억압 그리고 소작인 신분을 가진 무산자로서 겪은 계급적 억압이라는 다중적 현실이다.

「소금」의 결말은 작가가 소금의 의미를 되새김과 동시에 모순된 사회구조가 조선 유이민들의 고난의 근원임을 밝히며 유산자들을 적으로 확정하고 분노가 폭발하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sup>70)</sup> 따라서 역시 유이민의 궁핍한 삶을 만든 것은 유산자, 즉 돈 많은 자이다.

그래도 이 집은 소금을 흔하게 쓰두면, 그게야 돈 많으니 작구 사오니까 그렇겠지. 돈?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구나. 그 비싼 소금도 맘대로 살 수가 있는 돈 그 돈을 어찌서 우리는 모지 못했는가 하였다. (「소금」, 356쪽)

주인공은 ‘어찌서 우리는 모(으)지 못했는가’라는 마음속의 질문을 던진다. 가족이 간도로 이주해 온 것도, 공산당에 의해 죽게 된 남편의 비극도, 갈 길이 없어서 중국인 팽등에게 농락당한 것도 사실은 모두 ‘돈’ 때문이며, 여름에 농사지은 벼를 팽등에게 전부 빼앗겨서 가진 게 없기 때문이다. 즉 “지주와 소작인이라는 계급적 갈등이 자신의 삶을 파탄으로 내몬 근본 모순”<sup>71)</sup>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

68) 차상연, 앞의 논문, 442쪽.

69) 송명희, 「강경에 문학의 간도와 디아스포라」,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8집(12권 1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8, 24쪽.

70) 검열기간에서 결말 400자 정도를 붓으로 지워버렸는데, 평양의 문예출판사본에서 복원하였다. (『강경에 전집』, 보고서, 2006, 394쪽.)

71) 차상연, 앞의 논문, 441쪽.

이러한 계급적인 관점은 강경애의 다른 대표작인 「지하촌」(1936)에서도 재현된다. 이 소설은 간도를 배경으로 삼아 농촌의 궁핍을 자연주의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주고 큰년이에 대한 칠성이의 사랑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다. 작가가 이를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농촌의 궁핍상황과, 이러한 상황의 근원적 원인이다. 즉 주인공 칠성이는 몸도 불구하고 마음마저 불구이다. 극도의 궁핍이 빚어낸 결과로 질병을 얻었고, 그 질병에 의하여 심리적으로도 불구가 되었던 것이다. 그는 두 동생에 대하여 철없이 미워만 하고, 홀로 애를 태우고 있는 어머니에 대해서도 저주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의 미움과 저주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설정은 앞에 논의한 최서해의 작품과 흡사하다. 최서해의 「기아와 살육」에서 주인공은 참극을 겪은 후에 정신 잃은 듯 온 세상을 복수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계급주의의 초점으로 ‘못 가진 자’, ‘약한 자’에 대한 연민과 ‘가진 자’, ‘다스리는 자’에 대한 원한 혹은 증오심을 기초로 하여 현실주의적 시각을 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두 작가가 모두 실제 간도 이민 경험이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강경애의 경우는 처음 간도 龍井에 간 시기가 확실하지 않다. 실증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르면 1929년, 늦으면 1932년으로 기존의 연구들을 편의대로 인용하고 있다.<sup>72)</sup> 강경애는 장하일과 결혼해 1933년에 동흥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남편을 도와 용정에 머물면서 1939년까지 그 곳에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가운데 요양차 귀국해 있던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강경애의 간도 거주 기간은 10년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학예란에 단편소설 「과금」을 발표한 이후 그녀는 작가로서 왕성하게 활동한 시기의 대부분을 간도에서 보냈던 셈이다.

진지한 창작 태도를 중요시하는 강경애는 현실을 비판, 해부하여 대중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을 작가의 사명이라 생각하였다. 그래서 강경애는 자신의 소설에서 공간적 무대인 간도는 작가 자신의 1차적 체험의 바탕 아래 같은 조선인들 모두가 소작인 신세가 되어 노예와 같은 학대를 받고 있었다는 동시대의 韓민족의 자화상을 볼 수 있는 거울이기도 한 것이다.<sup>73)</sup> 그녀가 주목한 대상은 간도에서 수난받고 있는 조선 유이민 대중이다. 그들

72) 김현순의 기록에 의하면 강경애는 1929년 겨울에 중국 간도에 온 것으로, 이상경의 기록에는 그녀는 1931년 6월에 간도로 이주했다가 1932년에 귀국한 것으로, 이규회의 기록에서는 그녀가 1932년에 간도 행차를 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박충록의 기록에는 강경애의 1차 이주는 1929년부터 1931년, 2차 이주는 1932년으로 되어 있다. (전성호, 「강경애와 그의 소설세계」, 『강경애 전집』, 앞의 책, 16쪽.)

이 어떻게 살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어렵게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창작하였다. 앞에 분석한 대로 조국을 등지고 간도로 유랑 혹은 이주해 온 조선 유이민들의 빈궁한 현실을 체험하거나 목격해 온 최서해와 강경애에게 삶의 원초적인 적은 일제나 중국인 이라기보다는 사회의 부조리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최서해와 마찬가지로 강경애의 작품에서 중국인은 조선 유이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로 나타나지만, 그들은 고난의 근원이라기보다는 조선인들이 이주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된 어려움의 일환인 사회구조적 갈등관계로서 판단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두 작가의 작품들에서 중국인 이미지가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인 이미지에 대한 형상화 맥락에서 강경애의 소설은 최서해의 그것과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우선 앞에 분석한 「소금」에서 나타난 중국인 팡둥이라는 인물을 보면 비교적 복잡한 이미지가 독자들에게 전해진다. 최서해 작품에 나오는 지주와 마찬가지로 조선 유이민에게 횡포를 부리지만 한층 더 입체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는 지주였지만 자×단의 위협 때문에 “도망가고 몇몇 식구는 무참히도 죽은 후에 그는 용정에다 집을 사고 다시 장가를 들고 아들 딸을 낳아서 지금은 예전과 조금도 차이 없이 살았던 것이다.”(「소금」, 354쪽) 다시 말하면 악한 인물로 등장하지만 작가는 그의 과거를 밝힘으로써 단순한 악마 이미지가 아니라 사람으로 그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그녀에 의하면 중국인이든 조선인이든 간도 땅에서 목숨이 보장되지 못함은 중국인의 신세도 마찬가지다. 최서해의 여러 작품에서 단순히 평면적으로 묘사된 중국인 지주보다 팡둥의 비참한 과거, 간교한 인격, 흉악한 행각들에 대한 서술은 이미지가 심층적으로 완성된다.

소설 「채전」에서 중국인 지주의 딸 ‘수방이’를 매개로 중국과 조선의 하층민 간의 우정을 보여 준 내용도 주목할 만하다.

「채전」은 간도의 어느 농촌 농민들의 집단적인 소작쟁의를 그린 작품이다. 채소값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수방이’의 부모(지주)들이 ‘맹서방’을 해고시킨다는 말을 엿들은 ‘수방이’가 이를 ‘맹서방’에게 알려준다. ‘맹서방’은 다른 일꾼과 함께 쟁의를 일으켜 지주 ‘왕서방’의 음모를 파산시킨. 소설의 반동인물 역시 중국 지주이다. 소작인에게 피를 써서 이익을 얻고 싶고 의붓자식도 학대를 한 그들은 유이민 작가에 의해 묘사된, 전형적인 인간성이 없는 중국인 지주이다. 그러나 의붓자식으로 부모님에게 천대를 받은 수방이는 이민족인

73) 홍연실, 앞의 논문, 39쪽 참조.

조선 일꾼과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묘사된다. 때문에 조선 일꾼들을 동정하고 그들에게서 따뜻한 정을 느낀다. 그리하여 그녀는 죽음을 무릅쓰고 조선 일꾼들을 도와준다.

맹서방도 이서방두 그러구 모두다들 좋은 사람들이 어러케 나와 같이 일만 할 줄 알지 일만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인지 몰라? 바바와 같이 마마<sup>74)</sup>와 같이 노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까 그러면 이고추가 어머케 달리며 감자가 어머케 땅속에서 와와 마마같이 놀고 가만이 있다면 말이야.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지 뭐야 그래두 우리들은 좋은 옷은 못입으니……(「채전」, 77쪽)

‘수방이’는 일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반면, 어머니·아버지처럼 노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좋은 사람은 옷을 잘 입지 못하고 노는 사람은 오히려 옷을 잘 입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인식하기에 이른다. 이는 작가가 수방이의 단순한 판단 기준을 통해 간도의 부조리한 사회구조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작가의 내면적 계급의식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중국인과 조선인을 동일한 수난 계급으로 설정하는 작품은 한국소설에서 흔하지 않다. 특히 이민작가의 작품에서 수방이처럼 조선인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고, 결국에는 조선인을 도운 나머지 목숨까지 잃는 인물은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수방이라는 매개 인물을 통해서 작가는 일제시대에 간도지역의 빈궁상을 제시하면서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다. 지식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결말을 통해 죽음이라는 것이 일제강점기에 조선과 중국 하층 노동자들에게 부여된 공통적인 운명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강경애의 작품세계를 두고 “빈궁으로 인한 절망과 그 절망의 캄캄한 벽에 부딪쳐 끝내 죽음으로 끝나는 것”<sup>75)</sup>이라고도 하나, 이런 점으로 볼 때 1920년대에 같은 간도를 배경으로 일제강점기의 민족 참상을 그려낸 최서해의 작품과 대비되는 점이 있다. 간도 등지를 배경으로 빈궁과 반항의 문학을 창작했다는 데에는 공통점이 있으나, 최서해 소설의 경우 중국인 지주에 대한 단면적 묘사와 더불어 적극적인 경향문학적 요소를 지닌 것에 비해, 강경애의 문학은 빈궁과 처절한 삶의 현실을 제시하되 본격적인 경향적 운동이나

74) “바바”는 아빠의 중국어 ‘爸爸’의 발음이며 “마마”는 엄마의 중국어 ‘妈妈’의 발음이다.

75) 이주일, 「강경애론」, 『한국현대작가연구』, 국학자료원, 2002, 86쪽.

투쟁은 생략되고 또 추상화되는 데서 차이점이 있다. 「채전」에서 ‘맹서방’이 일으킨 소작쟁의가 그 구체적인 과정이 생략된 채 결과만 제시되고 있으며, 「소금」에서도 혁명투사로 알려지고 있는 봉식의 행각이 소설에서는 그저 사실로만 서술될 뿐 그 형상을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중국인 이미지에 대한 처리는 최서해보다 구체적이다. 최서해가 단면적인 묘사에 머문 것과 달리, 강경애는 조선인에게 극복해야 할 어려움의 일환으로 나타난 지주만이 아니라 조선인을 배려하여 도움을 주는 계층인 소작인도 등장시켰다는 점에서 입체적인 중국인 이미지를 형상화하였다.

이는 두 작가의 체험적 신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서해는 간도에서 5년 동안 거주하였지만 창작활동은 주로 귀국한 후에 조선에서 전개하였다. 이와 달리 위에 강경애의 작가로서의 활동기간은 그녀의 10년 간도 체류기간과 거의 일치한다. 철저한 빈궁 체험은 두 작가의 공통적인 창작 토대였지만, 그 방식은 차이를 보였다. 살인, 방화, 지식인의 각성 등 극단적 결말로 조선유이민의 미래를 암시하여 간도 정착의 실패를 예시한 것은 최서해의 창작 입각점이다. 강경애 역시 작품에서 극단적인 빈궁에 시달리는 주인공들의 죽음으로 조선인들의 정착 실패를 전망하였지만 유이민의 삶의 현장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객관적으로 나아간다. 즉 주인공의 계급주의적 각성보다 광대 하층민들의 비극적 삶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같은 이민작가 이면서도 최서해는 유민작가에서 이민작가로 변신하는 과도적인 색채를 띠었고, 강경애는 이민작가에서 정착민작가로 발전해 가는 특징을 가졌던 것이다.

### 3. 입체적이고 인간적인 중국인 이미지

‘남의 땅’이 아니라 제2의 고향으로 간도에 뿌리를 내린 정착민작가들의 작품은 ‘조선 유이민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라는 명제에 대한 탐구로 볼 수 있다. 그들의 작품에서 간도는 단순히 민족적 수난지나 슬픔의 이주 현장이 아니다. 새로운 고향으로 건설하겠다는 강한 정착의지가 녹아 있다.

안수길은 간도에서 20년 정도 살았고, 박계주는 간도에서 태어나 그 곳에서 자신의 청소년기까지의 삶을 보냈다. 그들은 오랫동안 유이민들과 동고동락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작품에서는 중국인 이미지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여기서는 안수길의 초기 단편소설인 「새벽」(1940), 「벼」(1941), 「원각촌」(1942), 「목축기」(1943)와 박계주의 「모토」(1933), 「인간제물」(1938), 「사형수」(1942), 「육표」(1942) 등에 나타난 중국인 이미지를 분석하기로 한다.

#### 1) ‘적’과 ‘동지’의 이중성: 안수길의 소설

안수길은 간도배경 소설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작가이다. 김윤식이 평가대로 “한국 문학의 만주체험을 살피는 데 으뜸가는 작가”<sup>76)</sup>이다. 안수길은 1935년 『조선문단』에 단편소설인 「적십자병원장」과 「붉은 목도리」로 등단하였다. 1977년 사망할 때까지 40년 동안 100여 편에 이르는 작품을 발표해 한국문학사에서 독특한 궤적을 남겼다. 그는 ‘북향회’라는 문학모임에 가입하여 당시 이주복, 강경애, 김국진, 이학인, 천청송, 박영준 외 다수의 용정시내 각급학교 교사들과 문예청년들과 함께 문학 강연회를 열기도 하고 기관지 『북향』<sup>77)</sup>을 간행하기 하였다. 그 후 1937년에 신경의 『만몽일보』와 용정의 『간도일보』를 통합한 『만선일보』에서 그는 기자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만선일보』에서 그는 「북향보」라는 장편소설을 연재함으로써 간도 조선 유이민문학을 주도해 나갔다.

76) 김윤식, 『안수길 연구』, 앞의 책, 11쪽.

77) 『북향』의 창간호 1935년 12월경에 발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30쪽 남짓한 적은 분량에 회원들의 창작물이 수록되었다. 현재 한국 국내에서는 2,3,4호가 확인되고 있다. (표언복, 앞의 책, 32쪽.)

일반적으로 안수길의 소설은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되는데 간도를 배경으로 삼은 소설은 그의 초기 작품에 해당한다. 안수길이 간도에 있는 동안 창작한 작품을 연대별로 보면 「새벽」(1935), 「함지쟁이 영감」(1936), 「부엌녀」(1937), 「차중에서」(1940), 「4호실」(1940), 「한여름밤」(1941), 「벼」(1941), 「원각촌」(1941), 「토성」(1942), 「새마을」(1942), 「목축기」(1943), 「바람」(1943) 등 모두 12편의 중·단편과 장편 「북향보」(1944)로 정리된다.<sup>78)</sup> 중·단편소설은 모두 그의 첫 작품집인 『北原』(1943)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만 작가 작품집인 『싹트는 대지』(1941), 『在滿詩人集』(1942), 『在滿朝鮮詩人集』(1942)의 뒤를 이어 발행되었으며, 개인 창작집으로는 유일한 것이기도 하다.

12편의 소설들 중에는 「새벽」(1935), 「벼」(1941), 「원각촌」(1941), 「토성」(1942), 「새마을」(1942), 「목축기」(1943) 6편이 간도지역 조선인들의 고통스런 삶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그렸다. 이것은 안수길 오랜 기간 간도에 이주하여 살면서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간도 조선 유이민들의 삶의 방식을 다양한 시각으로 형상화한 결과로 볼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간도 지역에 거주하던 5개 민족<sup>79)</sup> 중에서 조선인이 가장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안수길의 소설에서는 일제의 횡포는 말할 것도 없이 중국 관헌과 지주들의 횡포, 중국 농민과의 갈등, 일제와 중국인들을 등에 업고 동족을 압박하는 ‘얼퇴놈’, 마적단들의 폭력 등이 난무하는 극한적 상황 속에서 슬한 역경과 참상을 극복해나가야 하는 조선 유이민들의 처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러한 여러 세력이 얽혀 있던 시대 배경 하에 창작된 작품들에서 중국인의 등장은 역시 익숙할 만큼 흔하다.

우선 앞부분에 분석했던 유이민작가의 소설에서 조선 유이민들을 괴롭히는 가장 심각한 요인의 하나로 인식되는 중국 토착민들의 행패는 안수길의 작품에서도 재현된다. 이태준의 「농군」과 최서해의 「홍염」에서 제시한 것처럼 토착민들의 만행은 가난한 조선 농민의 간도이주를 망설이게 한다. 간도에 이주한 유이민이 정착을 포기하여 귀향하게 하며, 간도에서 조선 유이민 생활을 고단하게 하고 좌절시키기도 하는 첫 번째 요인이다. 안수길의 대표작인 「벼」에서도 이러한 중국 토착민의 만행이 묘사된다.

「벼」는 길림성 W하 유역에 마을을 이루어 사는 조선 유이민들이 간도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중국 토착민들은 조선 이주민들이 황무지를 수전으로 개간하도록 놓아두면 자신들에게 위협요인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이주

78) 김윤식, 『안수길 연구』, 앞의 책, 66쪽.

79) ‘만주인’, 일본인, 조선인, 러시아인(백계), 중국인을 가리킴.

민들에게 적개심을 갖는다.

그러나 원주민인 이곳 농부들은 박아지를 보통이에 매여달고 거지 떼같이 몰려오는 백성들에게 적지 않은 적개심을 느끼고 그들을 모멸하였다.

그것은 이주민으로 말미아마 그들의 지경지(既耕地)가 침해당할까 저어함이었다.

그들은 그들이 이미 개간한 땅 - 그것을 지킴으로써 만족히 여겼고 달리 개척한다거나 황무지같은 것을 이용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수전을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도 아닌 생각이겠거니와 그들은 습지며 낮은 곳은 한전에 적당타아니하여 그대로 팽개치고 돌보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고 이용할 수 없는 것인 줄만 여겼다. 그럼으로 이주민들은 떼를 지어들어 와서 결국은 그들이 이미 갈아놓은 땅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의 생활은 근저로부터 위협을 당한다는 것이었다.<sup>80)</sup>

토착민의 모멸과 적대적 태도는 위 인용문에 잘 드러난다. 토착민들은 마침내 조선인들이 머무는 집을 야밤에 집단 공격하여 여러 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박첨지의 맏아들을 죽게 하는 참극을 만든다. 이 일로 이주민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가는데 귀국하겠다는 의견과 황무지를 개간하여 성공하는 것이 곧 원수를 갚는 길이라는 의견이 맞섰다.

사실 이태준의 「농군」과 마찬가지로 안수길의 「벼」 또한 1931년의 ‘만보산 사건’을 원형으로 창작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소설에서는 역사적 사실과 사뭇 다르게 묘사되어 있다. 실제 사건은 조선 이주민들이 보호를 받고 일본 경찰이 중국 원주민에게 사격을 했는데, 「농군」에서는 중국 군인들이 조선 이주민에게 사격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벼」에서는 소현장의 이간 술책으로 인해 사건이 일어났으며 일본의 위세에 중국 육군들이 조선 이주민을 사격하지 못하고 하늘을 향해 총을 쏜다. 이주민에 대한 원주민들의 박해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농군」은 앞에 서술한 바와 같이 실제 일본의 수작으로 조선 국내에 왜곡된 사건 과정이 전해지면서 유민작가로서의 이태준을 자극해 민족주의 차원에서 창작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건 현장인 간도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안수길은 달랐다. 그는 일제의 검열과 탄압을 피해 가기 위해 불가피한 방편으로 「벼」와 같은 소설을 썼던 것인지도 모른다. 이처럼 작가의 창작 초점을 짐작하기 어렵지만, 안수길도 역시 이민자와 마찬가지로 중국토착민의 방해는 간도 유이민들의 이주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난관의

80) 안수길, 「벼」, 허경진·허휘훈·채미화 주편, 『안수길 전집』, 보고서, 2006, 273쪽. 이하 안수길의 소설을 인용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에 작품명과 이 텍스트의 쪽수만 명기함.

일환으로 생각한다.

안수길은 토착민만이 아니라 육군, 순경, 楫私隊, 마적 등 다양한 중국인 이미지를 소설을 통해 재현하였다. 이는 초기 작품인 「새벽」<sup>81)</sup>을 통해 확인된다.

「새벽」은 두만강 상류의 산골에 이주한 한 가족이 여러 사건을 겪고 나서 집안이 참혹한 불행을 맞는다는 내용의 작품이다. 이 작품은 생존하기 위하여 허기를 참으면서 고향을 떠나 간도라는 황무지에 이주하는 농민들, 조선 이주민과 중국 원주민 간의 모순 관계, 젊은 처녀나 젊은 아내를 담보로 땅을 빌려 경작하였지만 빚을 갚지 못하는 불행한 현실, 중국 순경·육군 등 여러 세력이 행하는 조선 이주민에 대한 폭행,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소금밀수 등 간도에 사는 조선 유이민들의 가혹한 현실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소설에서 “용돈은 물론이고 복장도 식량도 잘 내어주지 않는 장작팀 군벌의 私傭兵인 육군의 생활이란 말 못 되는” 것이다. 그들은 “농촌에 다니면서 약탈하지 않으면 그들의 생활을 유지할 방도가 따로 없”기 때문에 ‘법이 허락한 약탈’을 한다. 그들의 횡포에 대해 호소할 곳이 없었기에 조선 유이민들이 “육군과 순경을 사람같이 안 여기면서도 그들 앞에 겁을 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주인공 ‘복동네’ 일가에게는 마적과 함께 육군과 순경을 무서워하였다. 마적의 경우 무섭다는 소문만 들었지 한 번도 그들의 침입을 받은 일이 없었으나, 육군 또는 순경의 침입은 일 년에 몇 차례였기 때문에 “마적보다도 육군과 순경을 더 무서워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집에 들어올 때 ‘왕바당’이라는 중국말 욕을 하면서 복동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슴을 주먹으로 쥐어박으며 아편을 가져 오라고 하였다. “점심을 곱게 먹고 그들은 닭 똥은 것을 들고 나갔다”. 그리고 “다른 집에서는 혹은 돼지, 혹은 옷, 혹은 쌀 - 이렇게 빼앗겼다”. (「새벽」, 187~193쪽)

이러한 중국 육군의 모습은 한마디로 인간성이 없고 스스로 일하지 않으며 폭력으로 남의 성과를 점유하는 악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소금 밀수를 막기 위해 두만강변과 그럴 듯한 길목에서 감시하며 잡기만 하면 총살이라도 하는 중국 관청의 무장 습사대 역시 이 조선인 동네에서는 공포의 존재다. 소금밀수를 서슴없이 하다 들킨 복동이 아버지의 무서움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다.

이때의 아버지의 낮은 무어라고 형용했으면 좋을지 적당한 말을 찾을 수 없다, 그 처참하던

---

81) 원제는 「호가네 지팡」(1935.11)으로, 『만선일보』(1940)에 「새벽」으로 개작하여 발표함. 이후 『썩트는 대지』(만선일보사, 1940.11)에 수록됨.

얼굴! 절망에 다다른 얼굴! (「새벽」, 190쪽)

처참하게 절망에 빠진 복동이 아버지의 신세는 다름 아닌 바로 조선 유이민의 운명이다. 중국인 점사대의 악하고 무서운 이를 통해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소문으로 조선 유이민에게 불안을 느끼게 해 준 마적도 역시 같은 악역 계열에 속한다. 이처럼 안수길은 작품을 통하여 당시 조선 유이민의 삶에 해로움을 끼치는 중국인들의 다양한 이미지를 묘사하였다.

「새벽」의 결말은 누이의 죽음과 어머니의 정신상실이라는 삶의 파탄적 양상으로 귀결되고 만다. 이러한 이민들의 우울하고 비참한 삶의 방식은 앞서 고찰해 본 최서해의 「홍염」과 비슷한 맥락이다. 그러나 「홍염」이 딸을 빼앗긴 아버지가 중국인 지주의 집에 불을 지른다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는 반면, 「새벽」은 그 구성이 좀 더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흐르고 있다.<sup>82)</sup> 즉 소년의 누이는 자살에 이르게 되고, 어머니는 미쳐버리고, 아버지는 무능해지며, 누이의 애인인 ‘삼손이’는 마을을 떠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전개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의 재중 조선인 사회, 특히 간도 지역의 이주 조선인들이 간도에 거주하던 5개 민족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고발한다. 즉, 漢族이나 만주족 등 다른 민족들은 그들을 대변하는 정부나 독자 세력이 뒤에 있었지만, 이주 조선인들에게는 그들의 권익을 보장해 줄 정부는 물론, 신변을 보호해 줄 어떤 기관도 없었던 암울한 현실이었다.

그리고 「벼」에서 나온 ‘鄴현장’이란 인물은 주목할 만하다. 새로운 현장을 바꾼 매봉당은 위기에 빠진다. 이유는 바로 이 새로운 ‘소현장’이라는 사람에게 있다. 그는 북경의 대학을 졸업한 후 일본 유학까지 마친 젊은 엘리트 관료로서 排日사상을 지녔다. 그의 “정치적 목표는 배일에 있었고 그는 배일 사상으로 무장을 하였다.”(「벼」, 304쪽) 따라서 그는 부임하자마자 기존 관리를 재정비하고 현내 일본인을 조사하였다.

중국복을 입으나 국적에드나 조선놈은 어디까지든지 조선놈이고 조선놈인 이상 일본신민으로서 보호할 의무가 있다. 주장함은 당연한 일로서 여기에 비로소 영사관 설치가 문제되며 영사관이 설치된다는 것을 일본의 정치세력이 이나라에 인을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조선사람은 천성이 간사하여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편에 잘드러붙으나 그것이 불리하

---

82) 홍연실, 앞의 논문, 61쪽.

면 배은망덕하고 은혜베푼 사람에게 침뱃기가 일수라는 것이었다.〔벼〕, 306쪽)

위에 인용문이 제시하듯이 그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조선인이 더 많아질 경우에 일본 영사관이 설치되는 문제이다. 그래서 조선인에 대한 적극적인 탄압을 시작하였다. 소설 주인공 박찬수 등이 애써서 지은 ‘운봉학교’를 불태우고 이에 격분한 매봉둔 조선 사람들과 토착민을 이간질시켜 토착민으로 하여금 매봉둔 조선 사람을 배척하도록 술책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다가 토착민 마을로 향하던 중 중국 육군들과 부딪치게 되면서 마지막에 육군의 총을 하늘을 향하게 놓아 사람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는 결말에 이르게 한다.

비록 소설에서 ‘소현장’이란 사람은 조선 유이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반동인물인 것은 틀림없지만 작가는 북경대학을 나오고, 일본 유학까지 한 그는 패기에 있어서나 정치의식에 있어서나 진보적인 인물임을 분명한 어조로 말한다. 즉 중화민국 1928년 이래 장개석의 北伐이 성공하여 青天白日旗가 북만주에도 휘날리게 되자 중국은 종래의 매관매직의 썩은 정치를 없애고 三民主義에 입각한 힘센 정치를 펴고자 하였던 배경에서 ‘소현장’이 등장하였다. 따라서 ‘소현장’은 부정적 인물이라기보다는 민족 간 이해의 대립을 대변하는 인물 정도로만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이런 인물을 통해 안수길은 1920년대 말 역사적으로 중국 官民이 조선 이주민을 탄압하는 정책을 폭로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중국측은 조선인을 일제들의 앞잡이로 인식했거나, 만주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 정책이 장차 이들 조선 이민을 이용하게 되리라고 여겼다. 중국 자체의 인구가 조밀하기 때문에 기타 민족의 인구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중국의 그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였다. 조선 이주민들이 외교적으로 중국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한다는 데<sup>83)</sup>에 이유가 놓여 있다. 따라서 안수길은 이 갈등의 근원이 어디까지나 일제 세력의 확장을 꺼린 데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안수길은 조선 유이민들이 겪는 간도 삶의 어려움과 궁핍함을 소설을 통해서 형상화하였다. 유이민작가에 의해 제시된 것처럼 역시 토착민, 순경, 육군, 관현 등 중국인의 존재는 조선 유이민에게 간도 정착의 가장 큰 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안수길에게는 중국인이 단순한 악인이 아니다. 그의 소설에서 긍정적인 중국인 이미지도 적지 않게 등장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새벽」의 지주인 호씨, 「벼」에 나오는 첫 번째 현장의 한계운과 지주 방치원 그리고 「목축기」 중의 하층민으로서의 로우송 등이 바로 그러한 인물들이다.

83) 현규환, 『조선유이민사』, 어문각, 1967, 386쪽; 홍연실, 앞의 논문, 64쪽에서 재인용.

우선 「새벽」에서 보면, 학덕을 겸비한 인심 좋은 호씨는 조선인을 이해해 주고 후하게 대해 준다. 그는 조선인들에게서 칭송을 받는 지주였다.

원주인 호씨는 학덕이 겸비한 사람으로 북경에 본집을 두고 거기서 살고 있었다. 원래는 길림에 있었고 길림 일대와 간도지방에 막대한 토지를 가지고 있으며 일시는 당지의 사립 초등학교 교장까지 지낸 일이 있었다. 그러다가 연로함을 따라 동만지방의 가산을 정리하고 고향 북경에 가서 여생을 보내는 중이었다.

호씨는 특히 조선 사람에게 이해가 많아 길림에 있을 때는 항상 작인들에게 후하게 대하였다. ××년의 흉작, ××년 수해에는 소출을 받지 않고 곡창을 열어 이듬해 추수 때까지의 식량을 나누어준 일까지 있었다.

주민들은 입을 모아,

‘고마운 사람이야.’

‘쉽지 않은 사람이야.’하고 치사하였다. (「새벽」, 192쪽)

딸을 첩으로 시집보내는 전날, 주인공 복동이 아버지는 최후의 방법으로 호씨를 만나 사건의 자초지종을 알려 주면서 구원을 받고자 했다. 비록 호씨는 개인 사정인 애정 문제에까지 간섭할 수 없다며 그의 간청을 들어주지 못했지만, 복동이 아버지가 중국 지주 호씨를 구세주로 보고 도움을 청하려 했다는 사실은 호씨가 조선 유이민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며」에서도 호씨와 비슷한 중국인 지주가 등장한다. 중국인 지주 방치원은 온화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편이다. 황무지를 개간하는 조선은 3·7제(지주3, 소작인 7)로, 3년간은 무상이며 첫 해의 영농비용은 지주 쪽에서 부담한다. 이러한 후한 조건과 좋은 인심은 일제강점기의 중국인 지주에게 구박을 당하던 조선 유이민의 참상을 집중적으로 그려낸 유이민 작가의 작품에서는 보기 드문 경우다.

이 사람들은 결코 여러분들을 헤치려온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나라를 살기 좋은 고장으로 알고 찾아온 순수하고 죄없는 백성들이다. 나는 오랫동안 이 사람들의 고장에서 사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온순한 마음을 잘 알고 있다. 이 고장을 찾아온 이 손님들을 극진히 맞아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중략)...

여기서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말한 나그네요 여러분을 집주인이다. 여러분은 오늘저녁 귀중한 손님 불상한 손님에게 손을 대었다. 이것을 옳은 일로 생각하는가?(「벼」, 275쪽)

위의 인용문은 원주민과 이주 조선인 간의 갈등에 대한 방치원의 발언이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방치원은 지주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소작인인 조선 이민자들은 순수하고 불쌍하며 중국인에게는 귀중한 손님이라 생각했다. 그는 집주인으로서 나그네에게 손을 댄 것이 잘못된 일임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매봉둔의 한현장도 역시 조선 유이민들에게 후하게 대해 준 사람이다. 그는 중국 원주민들의 폭력시건, 즉 조선인들이 머무는 집을 공격하여 여러 명을 다치게 하고 박첨지의 아들 익수를 죽게 만든 사건을 자세히 조사한 후 가해자편에서 책임자를 내어 적당히 처리하라 하였다. 다시 말하면 항상 악역으로 간도 배경소설에 나타난 중국인 지주와 관헌이 안수길의 작품에서 이주 조선인들을 일정 정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매봉둔의 조선 이주민들은 방치원과 한계운의 도움을 받으면서 희망찬 미래를 내다본다. 그들의 노력으로 황무지 개간 공사에 성공하자, 고향에서 가져온 북과 장구를 꺼내서 흥겹게 추수를 경축하였던 장면도 소설에서는 구체적으로 묘사되었다. 이 점에서 작가는, 친일·국책문학이라는 비판적인 지적도 많이 받았지만, 중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재현이라는 면만 생각하면 작품의 현실적 가치가 인정된다.

지주와 관헌만이 아니라 하층민도 긍정적으로 그려진다. 안수길의 「목축기」(1943)에 나오는 제2의 주인공 역할의 중국인 로우송이 여기에 해당된다.

‘돼지 로우송’이라 불리는 예순 여섯 살의 중국 영감인 그는 “슬하에 혈육도 가족도 없었으나 가장 자손이 번열”하였다. “돼지가 그의 아들이고 손자고 딸이고 손녀였기 때문이다.”(「목축기」, 211쪽) 이렇게 중국 간도 땅에서 유랑하는 로우송은 조선 유이민과 다른 없는 하층민이고 부지런하며 순진한 사람이다. 돼지와 감정 교류만 하는 그가 돼지의 말을 알아듣는 듯했고, 돼지도 그의 말을 잘 들었다. 주인공인 찬호와 다른 사람들은 로우송에게 호감을 가진다.

이처럼 중국과 조선 양국 하층민 간의 우정을 다루었던 맥락은 앞에 분석한 유이민작가 강경애의 「채전」과 비슷하다. 「채전」에서는 중국인 지주의 의붓자식 수방이가 조선 소작

인을 도와줌으로써 자신의 목숨까지 잃는다. 안수길의 「목축기」는 계급의식이 반영된 소설은 아니지만, 조선 사람과 중국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자연과 대항하는 문맥으로 작품이 이루어진다. “강경에는 1930년대 식민지인 조선 현실의 궁핍한 모습을 국한하여 그려낸 것이지만 그 문학적 방향성은 민족의 생존권과 직결된 것이었다는 점에서, 안수길이 간도에서 뿌리를 내려 생존하고자 하는 韓민족의 삶의 기본권과 같은 성질의 것”<sup>84)</sup>으로 판단된다.

이상 안수길의 간도배경 소설에 나타난 중국인 이미지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현실적 집단갈등이론에 의하면 두 집단들이 부족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게 될 때, 그들은 서로를 위협하게 된다고 주장한다.<sup>85)</sup> 이것이 그들 간의 적대감을 일으키고 나아가 부정적인 평가들을 일으킨다. 따라서 편견은 양 집단이 원하는 자원들에 대한 현실 갈등을 하나의 필연적인 결과로 유발하게 마련이다. 안수길의 작품에서도 때로는 포악무도한 군벌잔당으로, 때로는 무자비한 마적으로, 때로는 ‘半일본인’으로 적대시하는 꺾끄러운 관현의 모습으로, 때로는 선진한 ‘수전공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매한 토착민으로 묘사되었다. 그렇게 묘사되는 중국인은 간도에 있는 조선 유이민들의 이해관계에서 늘 대척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안수길은 영원한 타자였던 중국인에게 자신의 소설에서 색다른 자리를 내준다.

다시 말해 안수길은 중국인에게 비친 당시 간도에 이주한 조선인들은 “동지일 수도 ‘적’일 수도 있는 복잡 미묘한 대상”<sup>86)</sup>이었던 것으로 파악한다. 중국인에게 간도의 조선인들은 제국주의의 타자라는 점에서 같은 처지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본 국적을 가진 ‘半일본인’으로서 조선인들의 개척 행위에 대해 일본제국주의의 대륙 침략 정책의 일환이기도 한다고 인식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작품에서 중국인은 한층 더 복잡해지고 인간화되면서 다계층의 다양한 모습으로 입체적이고 미묘한 대상이 된다.

안수길의 소설에서는 조선인 또한 모두가 온량하고 약한 처지에 있지 않은 것으로 그려낸다. 이는 바로 그의 작품에서 빈번히 나타났던 ‘얼되놈’<sup>87)</sup>이라는 한 무리다.

84) 김윤식, 『안수길 연구』, 앞의 책, 34쪽.

85) 홍대식 편저, 앞의 책, 717쪽.

86) 한수영, 「내부망명자의 고독 -안수길 후기소설에 나타난 ‘망명’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61집, 한국문학회, 2012, 270쪽.

87) ‘되놈’이란 말은 중국인을 폄하하는 말이고, ‘얼되놈’은 중국인의 앞잡이로 행세하는 조선인을 폄하하는 말이다.

직접적으로 동족을 등쳐먹는 부정적인 인물상은 1920년대 유이민 소설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1930년대에 이르러 이러한 인물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얼되놈’이란 새로운 용어가 널리 쓰이게 되었다. 이같은 현상은 1930년대 들어서 간도 유이민사회가 그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다양한 계층, 다양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양적으로 비대해져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면서, 작가의 시선이 외부 모순에서 내부 모순으로 돌려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sup>88)</sup> 안수길의 작품에서는 「새벽」의 ‘박치만’, 「원각촌」의 ‘한익상’, 「토성」의 ‘학수’ 등이 그들이다.

「새벽」에서는 동족을 박해하여 개인적 만족을 누리는 박치만은 스스로 한국인임을 숨기면서, 관청을 등에 업고 이주민들을 위협하며 부녀자를 농락하는 반민족적 인물이다. 주인공 창복이네의 비극은 박치만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원각촌」의 한익상도 마찬가지다. 만주말에 능통한 한익상은 아편 뇌물을 관리와 군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중국 측의 인정을 받으며 조선 유이민들을 갖가지 방법으로 괴롭히는 인물이다. ‘저놈 잡아가는 귀신 없냐’라고 마을 사람들이 소원을 빌 정도이다. 김동인의 「붉은 산」(1932)에서의 주인공 ‘삼(익호)’을 연상시키는 인물인 것이다. ‘삼’은 박치만과 한익상처럼 누구 하나 그의 경력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점은 똑같지만 뿔뿔이 다른 민족에게는 다르게 행동하였다. ‘삼’은 동족을 괴롭히면서도 동족인 송침지가 중국인 지주에게 죽음을 당한 것을 참지 못하여, 복수하였다가 희생을 당하였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김동인은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예찬하였던 것이다. 즉 「붉은 산」에서는 ‘삼’은 민족 내부에게 악종이었다가 민족 외부로 벌인 행동을 통해 선종의 성격도 지닌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비해 「새벽」과 「원각촌」에서의 박치만과 한익상은 민족의 안에서든 밖에서든 악종이었다. 이는 안수길의 조선 유이민들의 수난을 민족 외부의 문제보다는 민족 내부의 문제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처리한 결과이다.

그리고 「새벽」에서는 조선 유이민무리들이 항상 온화하고 근면하며 약한 이미지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 소설에서는 같은 조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M산골에서 원 이주민 사이에 통하는 사투리가 아닌 다른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면 ‘앞대사람’이라고 경멸의 대상이 되는 한 무리로 묘사되었다. 그들은 “앞대 사람은 말을 웨드게거릴 뿐만 아니라 교만하고 의리가 없고 이기적”(「새벽」, 198쪽)이라며, 어떠한 근거도 없이 편견에 사로잡혀 복동이 누이가 좋아하는 남자 삼손이와 동네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결국 누이의 자살을 유발시켰다.

---

88) 표인복, 앞의 책, 273쪽참조.

이러한 민족내부의 분쟁에 대한 묘사를 통해 안수길은 민족정신과는 상관없이 당시 조선 유이민 사회 내부에 존재했던 문제들을 날카롭게 재현하였다. 이러한 인물 설정은 민족성의 열등성을 조작해 낸 일제의 식민논리에 영합하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암흑기라 불렸던 1930년대 후반~40년대의 간도 조선 유이민 사회의 복잡한 현실에 입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민족주의와 계급주의를 떠나 역사 현실의 환원적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안수길은 이러한 거칠고 황폐한 수난의 실상을 민족 외적 모순뿐만 아니라 내적 모순도 없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일제의 수탈로 조국을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는 조선 유이민들과, 일본인들의 세력 확장으로 평온한 생활이 깨진 간도 중국 원주민들이 집단과 집단의 대결관계에서 自민족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집단으로서 협동적 관계를 맺으며 발전해 나가야 간다고 주장한다. 이는 안수길처럼 간도 정착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타나기가 힘들다.

안수길은 1911년에 함흥에서 태어나 1924년에 아버지가 있는 중국 용정 지방으로 이주하여 용정중학교를 졸업하였다. 그 후에 함흥, 간도, 서울, 일본 등의 중등 교육과정을 방황하면서 청소년 시대를 보냈다. 1932년 용정소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하면서 ‘만주’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는 『間鮮日報』의 기자로 활동하던 중 신문사가 『滿鮮日報』로 통합되자 당시의 新京으로 가서 기자 생활을 계속하다가 해방 직전에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이러한 그의 간도체험은 독특하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하여 혹은 일정한 이념적 지향을 실천하기 위하여 간도로 간 것과 달리 안수길은 떨어져 있던 부모 곁으로 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 나에겐 고향이 둘이 있는 셈이었다. 하나는 할머니 옆에서 유년 시대를 보낸 동해 바닷가의 조그만 포구요, 다른 하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생들을 데리고 살고 계시는 간도 용정이었다. 동해의 해변가가 제일의 고향이고 두만강 건너가 제2의 고향이랄 할 수 있다.<sup>89)</sup>

“그에게 간도란 낯설고 새롭거나 특별한 임무를 부과하는 땅이 아니라 이미 가족이 가서 정착하고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안수길에게 간도는 말 그대로 ‘제2의 고향’이고 그곳에서의 삶은 굳이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상적 생활이었다. 그곳에서 안수길은 한 사람의 생활인이었다.”<sup>90)</sup> 따라서 작가 안수길의 간도 정착민 신분을

89) 안수길, 「나자 머자니크」, 『亡命詩人』, 일지사, 1976, 69쪽.

확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간도에서의 삶이 고향보다 나은 부러움이 없는 제2의 고향이 되도록 노력하였고 이러한 정착의지를 소설화하였다. “그의 소설에서 조선 이주민들에게 있어 간도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절박한 투쟁의 공간이 아니라, 제2의 고향으로 삼아 ‘백년대계를 꿈꾸며’ 정착해야 할 공간으로 재인식된다.”<sup>91)</sup> 즉 조선 이주민들은 생존 그 자체가 위협받던 소작농에서 벗어나, 주권을 지닌 주체들로서 간도에 거주하게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유이민작가의 작품과는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간도는 최서해나 강경애의 작품세계에서는 어디까지나 어쩔 수 없이 없혀사는 ‘남의 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다르게 안수길의 경우는 간도란 뿌리박고 살아야 할 제2의 고향인 것이다. “이민작가의 뿌리는 한반도이나 그 반도에서 뿌리를 내지 못한 민족의 삶을 밖에서 문제 삼는다면, 안수길 같은 정착민 작가는 그 뿌리를 정착한 땅에서 내려 새 삶을 시작하는 이야기부터 작품화된다”는 오양호의 주장<sup>92)</sup>은 설득력이 있다.

실제로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안수길의 소설들에서 나타나는 여러 인간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작가 자신의 현실인식과 역사인식 차원에서 구체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나아가 작중인물뿐만 아니라 소설의 전체 흐름에서도 이러한 인식은 드러나게 된다.

「새벽」(1941)에서 한 가족이 간도로 이주하는 도중에 겪게 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궁핍한 현실을 재현하였다면, 그의 후속작인 「새마을」(1942)은 ‘만주국’ 건국 이전의 암담했던 생활에서 벗어나 희망이 보이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벼」(1941)는 가난한 조선 유이민이 벼농사에 대한 강한 집념으로 귀국이 아니라 정착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소설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편은 벼농사로써 생존의 터전을 삼고자 하는 의지로 삶의 뿌리를 박은 것이라면, 후편은 정착에 성공하여 2세 교육문제에 관심을 두어 학교를 세우는 과정을 그린 것이다. 「원각촌」(1941)은 조선 유이민들의 질곡과 수난사를 가림없이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만주국’ 건국 이후의 조선인 사회가 나가야 할 지평을 제시하고 있는 작품이다. 「목축기」(1943) 또한 자연과 싸우면서 집거촌을 건설하고 뿌리내리려고 하는 정착 의지를 담아내었다. 이를 통해 안수길의 소설은 힘없고 가난한 유이민들이 겪는 수난상만 제시되고 있는 데에 그치지 않고, 안정된 터

90) 이상경, 「간도 체험의 정신사」, 『작가연구』 제2호, 새미, 1996, 22쪽.

91) 정덕준, 앞의 책, 37쪽.

92) 오양호, 『한국문학과 간도』, 앞의 책, 77쪽.

전을 마련하고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과 투쟁의 모습을 그리면서, 강한 정착 의식을 드러내었다. 안수길은 성공적 정착을 통해 제2의 고향의 밝은 미래에 대한 전망도 보여주었다. 최서해와 강경애보다는 안수길의 소설에서 한층 더 풍요롭고 낙천적이고 또한 희망스러운 메시지가 전해진다. 비참한 과거, 힘겨운 현재, 희망찬 미래가 안수길의 작품에 담겨진 것이다. 안수길의 소설을 두고 ‘간도 보고서’라고 일컫는 것은 충분히 타당하다.

안수길의 소설에서는 ‘어떻게 살아왔느냐?’라는 질문을 품고 조선 이주민들의 생활을 발굴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련해 나간다. 따라서 그의 소설은 적절히 복잡한 간도 역사·정치 환경에 대응하며 이주민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색해 제시한다. 당시 상황을 고려해 대처하는 자세를 보면 두 개의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자기민족을 의식하면서 현실에 대응하는 적극적이면서도 강한 자의식이고, 또 하나는 현실에 순응해 사는 삶의 안식처를 찾는 불가피한 생존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정착민으로서의 안수길은 후자를 택한 것이다. 그는 회고록에서 “일부의 문예평론가나 문학사들이 암흑기라고 지적하는 이 시기에 나는 그런대로 만주와 국내에서 내게 허용되는 가능한 범위에서 힘껏 우리말로 작품 활동을 한 셈이었다”<sup>93)</sup>고 밝힌 바 있다. 일시적 도피처로 잠시 체류했던 경우와 달리 일제의 검열 때문에 문학 창작이 자유로울 수 없는 환경에서 힘껏 작품을 썼던 그는, 간도라는 제2의 고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정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것은 조선 유이민들이 간도에서 뿌리를 내려 정착하는 과정에 있어 유일하게 취할 수 있었던 생존방식인 것이다. 이러한 정착의식과 현실의식이 작용결했기에 다른 작가의 작품에서 항상 저항의 대상으로 간주되던 중국인은 비로소 조선 유이민의 힘겨운 삶의 단순한 타자라는 존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안수길의 소설에는 동족을 박해하는 ‘얼되놈’과 열심히 새로운 삶을 영위하는 선량한 조선 평민들이 동시에 존재하는가 하면, 악을 부리는 중국 지주는 조선인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갖는 중국인도 공존한다.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을 동시에 지닌 입체적이고 ‘적’일 수도 ‘동지’일 수도 있는 이중성을 가지는 중국인의 이미지가 안수길의 소설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안수길의 작품에 대하여 민족의식이 희박하다는 부정적 평가<sup>94)</sup>가 없지 않지만, 불가피하게 일제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던 모순적 상황을 정직하게 드러내었다

93) 안수길, 『나자 머자니크』, 앞의 책, 68쪽.

94) 김윤식, 『안수길 연구』, 앞의 책, 65쪽.

는 평가가 더 적절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하는 인간의 생존 앞에 민족의 정체성을 따지는 것이 역시 너무 가혹하거나 무책임한 이데올로기에 조종되는 과장된 행위”<sup>95)</sup>이기 때문이다.

## 2) 일상의 보편적 인간상: 박계주의 소설

안수길이 고국을 등지고 이국땅인 간도에서 조선 유이민들의 농촌 공동체인 간도 정착사를 群像으로 그려냈다면, 같은 정착민 작가로서의 박계주는 극히 대조적이라 할 정도로 암흑기 간도 현장을 대하는 상이한 시각과 방법을 보여주었다. 그는 망국멸종의 위기에 처한 실향민들의 개인적 삶을 통해 결코 ‘낙토’라고 부를 수 없는 간도의 암흑한 실상을 작품화하였다. 박계주는 1940년대 전후로 자신의 간도 생활 체험을 토대로 조선 이주민의 삶의 현장을 다각적으로 형상화한 소설들을 발표하였다. 그는 개척정신, 현실고발, 민족의지 등의 주제를 소설에 반영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와 사회가 작가에게 부과한 사명을 철저히 의식한 리얼리즘 작가였다는 평가<sup>96)</sup>도 받고 있다.

박계주는 1929년 『간도일보』 신춘문예에 「적빈」이라는 작품이 입선되어 문학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1966년에 사망할 때까지 많은 작품을 남겼다. 그의 문학은 8·15 해방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구분할 수 있다. 해방 이전인 전기 작품 중에는 중국 간도 지방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오양호는 이것을 안수길의 문학과 함께 조선 이민문학으로 취급하는 동시에 “재만 이주민의 생활현장을 문제 삼는 본격문학”<sup>97)</sup>이라고 규정하였다.

여기 모은 작품은 모두 해방 전의 것이요, 의식적으로 그리한 것은 아니나 고르고 보니 해외 무대로 한 것뿐이다. 이국을 무대로 하여 지상, 혹은 방송을 통하여 해방 전에 발표했던 같은 계열의 작품으로는 이 것 외에도 「人間祭物」(삼천리), 「오리온星座」(朝光), 「火星女」(新世界), 「郷土」(春秋), 「아라사處女」(半島之光), 「南十字星」(放送), 「愛狂者」(實話) 등이 있으나 그것은 따

95) 오양호, 『만주이민문학연구』, 앞의 책, 서문 부분 참조.

96) 오양호, 『한국문학과 간도』, 앞의 책, 41쪽.

97) 위의 책, 89쪽.

로 상작해 볼까 한다. 이렇게 취재를 국외로 많이 하게 된 것은 아마 내가 이국에서 출생하여 이국에서 자라났던 탓일지도 모른다.<sup>98)</sup>

위에 인용문에서 확인되듯이 당시 간도에서 길거나 짧게 생활한 데서 그치는 다수의 유이민 작가와 달리, 박계주가 중국 간도에서 태어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전체 문인을 통해 몇 안 되는 중국 간도 용정 태생의 작가이고, 부친 대에 간도에 이주한 유이민 2세였다는 것이다. 1913년 구산소학교, 영신소학교, 영신중학 등에서 공부하였고, 용정중학교를 졸업하였다. 세계관과 인생관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를 중국에서 보낸 것이다. 따라서 안수길이 긴 기간의 간도 체험으로 정착민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면 박계주는 태생적 정착민 작가라고 할 수 있다. 박계주에게 간도는 더없이 익숙한 공간인 셈이다. 그가 언제 정착민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왔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용도 목사 중심의 ‘예수교회’ 창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1933년을 전후한 시기일 것으로 추정된다.<sup>99)</sup> 그는 간도에서 20년이란 긴 시간을 보내면서 조선 유이민 사회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해방 전에 발표된 작품들은 물론이고 해방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간도는 그의 작품들에서 매우 중요한 공간적 배경을 이루며 중심 제재가 되었다.

임시로 지어진 판잣집, 천막집, 되는 대로 지어진 초가- 그러나 상점마다 남포불이 켜져 있었으며, 갖가지의 물건으로 즐비했다. 쌀가게, 잡화상, 포목상, 푸줏간, 여관, 중국인 캐잔, 청요리집, 한국인의 장국밥집, 냉면집, 술집, 거리의 한쪽에 떨어져 있는 유락촌 - 한국인 음식점 앞에는,

소주

탁주

불고기

순대

떡국

이러한 글이 씌여진 포장이 문 앞에서 너털거렸으며, 중국인 음식점 앞에는 등그런 체바퀴갈

98) 박계주, 「『處女地』 후기」, 『處女地』, 박문출판사, 1948, 251쪽; 김성화, 「박계주 이민소설의 개작문제」, 『한중인문학연구』 제30집, 중국남통대 외국어학원, 2010, 3쪽에서 재인용.

99) 표인복, 앞의 책, 398쪽.

은 것 밑에 종이오리가 잔뜩 달려 역시 바람에 너털거린다. ‘北京園’이니, ‘一香樓’이니, ‘山東飯店’이니, ‘龍源居’니 하는 나무 간판들이 붉은 천을 달고 걸쳐 있는 것도 한결 이국정서를 풍겨 준다.<sup>100)</sup>

이런 간도 풍경에 대한 묘사만 보더라도 박계주에게 간도란 친숙한 장소였음을 알 수 있다. 고국인 조선과는 민족, 언어, 관습, 생활양식 등의 문화적 동질성과 더불어 지리적 인접성을 가진 곳이기 때문이다. 태생지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체험하고 그 지역을 친숙한 장소로 인지하는 것도 당연하다. 간도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는 신문잡지에 시나 수필 등을 발표하면서 북향회에 가입하였다. 북향회의 성격이 그러하듯이 박계주에게 간도는 고향이라 할 수 있다.

박계주가 22살이 되던 해인 1934년 평양에 가서 작가 생활을 시작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격적으로 작품을 썼던 1940년대 전후에 그는 서울에 있었다. 즉 그의 간도 체험 소설들은 모두 조선에서 창작되고 발표하였던 것이다. 1940년대 배경으로 등장한 간도라는 곳은 그에게 친숙한 고향이라는 의미보다는 타국의 의미가 더욱 부각된다. 작품에서 익숙한 풍경, 익숙한 문화와 정서가 빈번히 등장하는데 그가 ‘이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하면 박계주에게 간도는 조선 유이민 사회의 거칠고 척박한 곳이지만 조선 내부 어느 사회와도 똑같은 다양하고 일반적인 삶의 공간임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에게 간도란 땅은 고향이기도 하고 타향이기도 한, 평범하면서도 특별하다는 이중적 성격을 띠게 된다. 따라서 그에게는 간도에 사는 조선인과 중국인 간에 집단과 집단의 대립이 아니라 같은 집단으로 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는 당시 다수의 간도 체험이 있는 유이민 작가 혹은 정착민 작가들과 다르게 소설의 창작이 이루어지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그는 작품에서 주인공이든 다른 작중인물이든 모든 인물들 사이의 긴장이나 갈등, 가족들 간의 불화, 혹은 일시적인 쾌락을 좇는 통속적 욕망 등 개인적인 삶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이야기가 발생된 장소는 간도라는 이국땅이다. 다시 말하자면 박계주가 작품 속에 인물의 개인차원의 희비를 다루면서 간도라는 기형적 생활 현장에서 그 인간을 타락시키는 근원을 탐구함으로써 독자에게 조선 유이민들의 고된 삶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특수한 표현

100) 박계주, 「육표」, 허경진·허휘훈·채미화 편, 『김창걸·최명익·박계주 외』, 보고사, 2006, 536쪽. 이하 박계주의 소설을 인용할 때는 ()안에 작품명과 이 텍스트의 쪽수만 명기함.

현상은 그가 중국인 이미지를 창출하는 데에도 나타난다.

박계주의 「인간제물」(1938)은 舊중국에서 악질 지주 팡륙싼과 경찰들이 결탁하여 조선 유이민들이 하지 않은 일에 책임을 지는 인간 제물이 되면서까지 간도땅에 발붙이려는 정작의지를 보여준 작품이다. 이 작품은 죄를 씌워 감금하는가 하면, 주인공 아내인 김연희를 능욕하는 야수적 만행을 폭로하고 비판한다. 조선 유이민의 아내를 탐하여 도박죄의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농간을 부리는 중국인과, 농자를 빌려주고 그것을 빌미로 유이민을 괴롭히는 원주민 지주, 지주의 뇌물을 받거나 그 위세에 눌러 함께 놀아나는 중국인 관리 등 조선 유이민의 고된 삶에서 가장 위협적인 요소인 중국 지주와 관헌의 전형적인 이미지가 이 작품에서 재현되었다.

작품 중 ‘팡개’라는 중국인 지주는 ‘기름이 번즈르르하게 살진 뚱뚱한’ 얼굴과 ‘돼지 목아지 같은 목을 내려저으며’ 조선 소작인을 어떻게든 더 압박하고 착취하고자 속셈을 펼친다. “니디(당신) 사람이 진넨(금년) 첸디(돈을) 갚지 았엇쉬디 니다노포(네 아내) 니디딸(네 딸) 빼아서 가는 게”(「인간제물」, 430쪽)에서 보듯이, 돈을 갚지 못하면 아내와 딸을 빼앗간다고 위협하는 ‘방개’는 인간성을 상실한 야욕가다. 그리고 ‘니디’ 같은 중국 사람이 일본말을 모방하는 말투로 말하는 걸 보면 그가 일본사람의 앞잡이로 추정된다. 직접적인 묘사는 아니지만, 일제 세력이 이 방개 지방에 주는 영향력은 적지 않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팡개 지방 일대에서는 팡개가 추장과 같은 지위에 있어서 팡개네 세력 밑에 경관도 좌우되다시피 되므로 그들은 의견이라면 옳고 그름을 불문하고 대단한 열성으로, 아니 대단한 야심과 무리로 집정하고 있었다”(「인간제물」, 436쪽)고 하니, 이 지방의 주인이 중국인 ‘팡개’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주인공 ‘임철규’ 일가의 삶을 직접 파괴하는 파괴자로 등장한 지주 방개의 아들인 ‘팡륙싼’ 또한 조선 유이민들의 고혈을 빨아 먹는 흡혈귀다. 그는 임철규의 아내 김연희의 미모를 탐하다가 능욕하려고 했을 때 조선인 ‘김갑수’에게 들켜 계획이 무산되었다. 이로 인해 그는 공안국과 싸고 빚을 갚지 았았다는 죄명으로 김갑수의 아버지 김초시를 잡아가두고 이튿날에는 김갑수도 체포해갔다. 팡륙싼은 김연희의 남편인 임철규도 감금시키려고 했지만 임철규는 팡륙싼이네 돈을 꾸거나 빚진 것이 없다 보니, 다른 피를 내었다. 그는 순경과 짜서 꾸민 연극으로 임철규가 도박쟁이라고 모함해 감금하고는 벌금 80원을 내야 공안국에서 보내준다고 한다. 하지만 팡륙싼은 김연희가 돈을 꾸러 올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며칠을 기다려도 오지 않자 직접 연희네 집을 찾아간다.

니 우리말이 안들어쉬디 우리 당신 장케즈(남편)에게 된(돈)이 안줘, 쌀이 않줘, 니 우리말 잘 들어 된이 많 줘 쌀많이 주는게. 또빚이 아니값어도 일이 없어. (『인간제물』, 432쪽)

광록싼이 위와 같이 회유하였으나 김연희는 그의 말에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광록싼은 자신의 야욕을 다시 한 번 채우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묘사를 통해 광개와 광록싼이라는 중국인 부자는 조선 유이민에게 온갖 행악질을 일삼는 악역임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앞에 분석한 유이민작가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가장 악한 중국인 지주 이미지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지주와 공안국, 경찰들이 서로 결탁하여 이주민들을 압박하고 착취한다는 사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소위 백성의 안령질서를 위한다는 위정자들은 철규가 법률을 무시하고 도박하였다는 죄명하에 팔십원 벌금형에 처하였다.(『인간제물』, 443쪽)

광록싼에게서 뇌물을 받아먹은 경관들은 옳고 그름을 묻지 않고 무죄한 임철규를 모함하여 체포한다. 이런 상황은 당시 조선 유이민들이 간도 지방에 정착하느라 어떤 억울함과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렇지만 김연희의 죽음이 중국인 때문인 것은 아니었다. 연희의 죽음을 초래한 인물인 ‘송통사’는 바로 안수길 작품에서 적지 않게 등장한 ‘얼되놈’과 같은 계열이다.

이러한 광록싼은 방문도 혼자있는 연희에게는 괴로운일이었지만, 그보다도 더 큰 괴로움은 공안국 형사격으로 있는 송통사의 방문이었다. 송통사(통사는 통역관이지만 형사일을 겸쳐 본다)는 이곳공안국의 유일한 조선사람이다. 그러나 송통사는 다른 중국사람 순경들보다도 더 간악하고 횡폭한 인물이다. 본래 모루히네 중국자이든 그는 공안국의 통사로 들어가면서부터 중국순경들보다도 도 심하게 자기 동포를 압제하고 뇌물을 받아먹고 착취하고 강간과 간통을 일삼어왔다. (『인간제물』, 446쪽)

송통사는 연희의 미모에 반하여서 그녀의 육체를 한번 손 안에 놓아 보려는 야심을 전

부터 품고 있었다. 기회를 타서 그는 술에 취해 연희네집에 와서 방바닥에 코골며 자다가 선근이가 잠든 뒤 불을 끄고 연희를 유린하려고 하였다. 연희는 이에 반항하여 송통사를 식칼로 찌르려다가 다시 생각한 후에 자기 배를 찔러 죽고 만다.

이러한 동족애와 인간성 없는 ‘얼되놈’은 박계주의 다른 작품 「애로역정」·「탈출」<sup>101)</sup> 등의 작품에서도 등장한다. 이것은 안수길과 같이 정착민 작가로서 간도의 삶의 현장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포착하지 못할 동족 내부의 모순이다. 송통사가 연희의 동포애에 감화하여 자신의 짓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인해 자살한다는 결말은 다소 앞뒤가 안 맞지만, 이는 박계주 작품의 일반적 양상이다. 즉 악한 자의 개인적 각성으로 사회의 본질을 폭로하는 박계주 소설의 특징인 것이다.

그리고 시종일관 ‘천사처럼’ 좋은 사람으로 등장한 주인공 임철규의 심정을 통해 작가의 정착의지를 보여주었다.

아니 조선사회가 두 손을 들어 다시 나를 환영하여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이민동포의 참경을 못본 듯이 나를 환영하는 곳으로만 그리고 내 살기 좋은 곳으로만 갈 수 없다. 먹오도 저들과 함께, 굶어도 저들과 함께, 이리하여 내 힘이 자라는데까지는, 아니 내 생명이 무즈러지기까지 노력해야한다.

그렇다, 이곳이 내 고향이오, 내 백골을 기다리고 있는 무덤이다. 태양을 등진 북간도의 농촌! 이곳을 내 이민동포의 복지로 낙토로 변케할 임무가 내 어깨에 지워져 있지 안느냐. (「인간제물」, 440~441쪽)

아내의 죽음을 맞아 홀로 남더라도 죽을 때까지 간도 땅에 정착하겠다는 결심은 임철규의 심정이자 작가의 의식이다. 이주 초기 중국의 악질 지주와 지배계급 그리고 동포애가 없는 얼되놈의 혹독한 박해와 착취의 양상을 박계주는 이 소설을 통해서 보여 주었다.

마적 또한 조선 유이민을 괴롭히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박계주의 소설에서 마적의 실상에 대한 진지한 이해는 부족하다. 일제는 그들의 침략정책에 대하여 투쟁하던 모든 항일운동가들을 싸잡아 마적·胡匪·洪鬍子·匪賊 등으로 불러가며 匪民分離를 획책하였다. 실제로 마적은 본래 철저하게 빈민중적 정치권력과 맞서 싸우는 민중종교인 도교를 정신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 仁義的 존재이다. 山賊 혹은 流賊들로부터 농민을 보

101) 「탈출」은 1940년 『가정지우』에 발표되다가 미완으로 끝난 작품이다.

호하기 위해 지방주민 스스로 구성된 무장조직이었으나 후에 단순한 산적이나 유적과 구별되지 않고 무차별 토벌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오늘 중국 학자들은 ‘馬賊精神’<sup>102)</sup>을 ‘만주’ 문화의 중요한 표상으로 여길 정도로 마적은 중국 동북 지방의 특별한 존재였다. 같은 시기에 중국 문학 작품에 등장한 마적의 이미지는 비교적 긍정적인 모습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일제강점기 한국 작가의 간도배경 소설에 나타난 마적 이미지는 대부분이 ‘외래자’인 조선 유이민에게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시기에 마적 모티프가 나타난 작품들은 적지 않다<sup>103)</sup>. 유민작가 이태준의 「농군」과 이민작가 최서해의 「고국」·「이역원혼」 등 작품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소문’으로 유이민의 평온한 삶을 파괴하고 위협하는 존재인 것을 엿볼 수 있다. 강경애의 「소금」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고, 안수길의 「원각촌」에서도 ‘얼되놈’ 조선인 ‘한익상’과 내통하며 행악질을 일삼는 마적을 보여주었다. 박계주도 적지 않게 자신의 소설에서 마적을 등장시킨 작가였다.

이러한 가혹한 지주의 압제도 압제려니와 특히 이 지방은 수천년, 수만년의 처녀림으로 바다를 일운 안도현 접경인 장백산하의 일 촌락이 여서 풍년만 되면 그처녀림을 무대로 출몰이 빈번한 만주명물 아적의 침해와, 또 그들 손에 강간, 착취, 폭행을 당하는 모든 비극을 생각할 때 연히의 얼굴에도 검은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다. (「인간제물」, 431쪽)

그러나 ‘마적’하고 생각하면 어쩐지 무시무시한 기분이 일으켜진다. (마적은 사람을 인지로 잡아 간다는데……그리고 돈 안 보내면 귀를 버여서 독촉장과 함께 보내고, 그래도 소식이 없으면 총살해 버린다는데……) (「모토」, 460쪽)

마적들 역시 성밖에 나오지 못하는 경관들임을 연래의 경험으로 잘 알게 때문에 거리로 쓸어들어 제 세상인 양 판을 치며 돌아간다. 도끼로 상점 문을 깨트리고 들어가서 밀가루 포대와 소금포대와 천과, 그밖의 필수품들을 끌어내어 말 등에 오려 실는 무리, 또는 청용도(靑龍刀) 휘두르며 광산경영자들의 집집을 수색하여 주인을 붙에서 돈을 내면 놓아 주고, 돈 없다면 유과오<sup>104)</sup>로 결박짓는 무리…… 이 적은 촌거리는 그들 마적에게 유린 당할대로 당하여 아비규환

102) 중국 작가 蕭軍의 「第三代」, 「八月的鄉村」, 駱賓基의 「邊陲線上」, 端木蕻良의 「邊遠的風沙」 등 소설에 나타난 ‘마적’은 있는 자에게 약탈하고 못 가진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는 호협한 이미지다.

103) 표인복, 앞의 책, 160쪽.

(阿鼻叫喚)의 생지옥(生地獄)을 이루어 놓았다.(「육표」, 543쪽)

위의 인용문이 제시하듯이 마적은 살인, 방화, 약탈 등 온갖 악행을 일삼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고향을 등지고 의지할 곳이 없는 조선 유이민들에게 마적은 소문만 들려도 떨리고 무서운 공포의 대상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육표」에서 다음과 같은 마적의 노래도 적어 둔다.

上等人們該找錢, (特權階級에게선 돈이나 건우자)

中等人們莫管閒, (中產階級들에게는 상관 말자)

下等人們快來吧, (無產階級은 어서 오라)

跟我上山來過年. (우리 함께 산에서 즐겨 지내자) (「육표」, 544쪽)

이것은 마적들이 습격에 성공한 후에 ‘한 손에 잔을 들고 다른 한 손에 돼지 갈비를 쥐고 뜯어 먹으면서’ 자축할 때 부르는 노래이다. 이 노래에 의해 그들 마적은 실제로 義賊인 것을 알 수 있다.<sup>105)</sup> 그들은 돈이 많고 인심이 없는 鑛主와 같은 上等階級을 습격의 대상으로 삼아 그들에게서 약탈한 돈을 일반 백성들에게 나눈다. 그러므로 그들의 행각 때문에 일반 평민은 공포의 이미지가 남지만 실제로는 仁義之師로 볼 수 있다. 물론 작품의 주인공 당달귀와 성호도 인질로 잡혀가지만 그들의 목적은 돈이기 때문에 당달귀와 성호의 목숨을 끊지는 않았다. 이것은 박계주가 「육표」에서 조선인과 마적의 만족적 대립 설정보다 가진 자와 마적의 계급 간 대립양상을 보여주는 것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다. 마적에 대한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은 바로 작가가 간도에서 태어나 거기서 실제 생활 경험에서 얻어온 탁월한 현실 인식의 결과이기에 높이 평가될 만하다.

박계주는 소설 「사형수」(1942)에서 마적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켰다. 이 작품은 왕덕이라는 여진족의 후예가 마적단에 참여하여 총살당한 전날 밤부터 죽을 때까지 그의 심리변화 과정을 묘사한 것이다. 그는 부모와 30여 년 전에 헤어져서 그동안 방랑하고 노역하며 굶주리기를 거듭하였다. 그러다 마적단에 가담해 십년을 하루같이 安圖縣 오지인 長白山脈을 무대로 관가에 나타나면서 약탈과 방화, 살해 등을 일삼아 왔던 것이다. 그는 마적단

104) ‘肉標’의 중국어 발음, 인질의 뜻.

105) 우충충, 앞의 논문, 32쪽.

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인테리’였기 때문에 ‘당잘’<sup>106)</sup> 위에 있었지만 수령이 부럽거나, 노역과 굶주림에 지쳐서 마적단에 가담했던 것은 아니다. 어렸을 때 집을 뛰쳐나와 남이 배우는 학문에 욕심이 나서 고향으로 갔을 고생을 하면서 공부했었다. 오랑캐의 후예라는 혈통의 차별로서 번번이 야면[衙門]에 등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반역의 길을 걷게 한 이유다.

이 작품에서 사형수는 세 명이 나오는데 왕덕과 같은 사람은 낡은 중국의 반항아로, 현실을 부정하면서 씩씩하게 죽는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만 낡은 중국이 자신을 사형하는 것은 죄인이 죄인을 심판한다, 죄인이 죄인을 사형한다고 생각해 이러한 암흑한 제도야 말로 ‘백성의 피를 빨아 먹고 살을 지며 먹는 불한당’이고 역적이라 말한다.

왕덕의 말과 같이 그들은 마적과 다를 것이 없었다. 도리어 ‘위선’이라는 죄를 하나 더 뒤집어 쓴 마적이사의 준은 인민의 보호자였다. 평화의 사자(使者)였다. 위풍이 등등하다, 빼젓하다. 죄인이 죄인을 심판한다. 죄인이 죄인을 사형한다. 어디서 온 진리냐.(「사형수」, 493쪽)

작가는 왕덕이라는 악역 마적을 통해 간도에서 보고 느꼈던 냉혹함과 혼탁함, 인간에 대한 애정과 신뢰의 부재를 그리려 하였다. 다시 말해 간도라는 공간에 살고 있는 조선 이민자의 절망과 갈등을 사회 제도에 대한 비판 차원으로 고발한다. 따라서 박계주의 작품에서 나타난 마적 이미지는 다른 작가에 의해 묘사된 단일적인 ‘악’의 화신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 심층적으로 탐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단순히 조선 유이민 생활의 ‘적’이란 이미지로 처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한 사람이 어떻게 마적으로 타락하였는지, 죽기 전에 어떻게 각성하는지 등에 대해 사회의 근원에서 원인을 찾는다. 이것이 간도에서 오랜 경험 없이는 언지 못하는 현실 의식이고, 작가의 정착민 신분 또한 여기서 표출되었다.

개인적인 삶의 타락과 마지막에 사회와 자신을 반성하여 각성하게 되는 소설 전개 양상은 위에 분석한 것 외에도 박계주의 작품세계에서 빈번하게 드러난다.

「모토」는 ‘오족협화’와 ‘왕도낙토’를 표방하는 ‘만주’의 황금만능 세계에서 허영심에 들뜨면서 민족적 양심까지 집어던진 인물을 등장시켰다. 사회의 밑바닥에 사는 폐인이 돼버린 후에야 자기가 나고 자란 고토 모국을 생각하여 조국에 흠이 되고 싶다는 인물로 하여금 부조리한 제도를 폭로하고 비판한 작품이다. 「육포」에서도 주인공 강달규는 자포자기

106) 중국어 ‘當家’의 발음으로 수령을 뜻하다.

하여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간도에서 철저히 일탈된 생활을 하며 마지막 죽음을 맞기 전의 각성을 통해 간도의 무기력하고 퇴폐적인 사회를 비판적으로 내보이고 있다.

앞에 분석했던 「인간제물」의 ‘송통사’ 또한 같은 계열이라 볼 수 있다. 동족을 동포에 없이 박해하여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자신 때문에 죽게 된 김연희에게 감화하여 자살하는 데, 또한 인물의 각성이라는 전개로 이야기를 끝맺을 작품이다. 이를 보면 박계주는 강경애나 최서해처럼 외재적 박해와 수탈로 인해 더 이상 살 수 없어 치열한 반항이나 투쟁은 전개하는 인물보다는, 그의 작품에서 언제나 외재적 사회 제도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신하여 또 다시 자아 각성으로 사회 제도의 불합리를 폭로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간도에서 자랐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환경, 다른 체제의 정치적 여행과 장시간의 실향이라는 민족 역사의 단절이라는 체험이 작용한 결과라고 본다.

그러나 박계주의 작품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적지 않다. 그의 소설에는 적극적이고 진지한 성찰이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조선 유이민들에 대한 동정심조차 보여주지 않는다는 지적<sup>107)</sup>도 있다. 그리고 박계주의 문학 세계에 대한 연구도 아주 한정적인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 그의 대표작인 장편소설 「순애보」에 집중하고 있고 그의 수많은 작품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와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사실의 근저에는 이미 어쩔 수 없이 굳어진 박계주의 작품들에 대한 선입견이 작용<sup>108)</sup>하기 때문이라 본다.

박계주의 작품 창작 및 발표할 때의 사회 분위기를 한 번 더 고려해보면, 당시 조선 국내에 1940년대 들어 소위 언론, 출판, 집회와 관련된 掲載制限令(1941), 新聞事業令(1941), 出版事業令(1941) 등 일제가 민족의식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극단적인 단계에 가 있었던 시기다. 곧 당시 소설가나 시인들은 대부분 내면으로는 반일의식을 견지하면서도 겉으로는 현실체제에 영합하는 이중적 처세를 취하였다. 안수길은 바로 이러한 경우다. 검열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회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당시 조선 국내의 창작환경은 자유롭지 못했으나 박계주의 경우 현실체제에 영합한 이중적 처세나 현실 고

---

107) 표언복, 앞의 책, 403쪽.

108) 오양호, 「이민문학론Ⅱ -박계주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4권, 한민족어문학회, 1977, 70쪽.

착적 태도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오히려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수사로 현실의 부조리성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상으로 박계주의 소설에 나타난 중국인의 이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의 작품에서 중국인은 단순히 조선 유이민의 삶의 위협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인간제물」에서 야수적 만행을 저지르는 악질 지주 광록산과 광개라는 ‘악’한 자도 있고 「육표」에서 마적들이 불렀던 노래를 통해 돈 많고 인심이 없는 상등계급에게 약탈한 돈을 일반 백성에게 나누다는 ‘선’과 ‘악’이 교차된 이미지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형수」에서 여진족 왕덕에 대한 묘사를 통해 한 사람이 어떻게 마적으로 타락하여 또 죽기 전에 어떻게 각성하게 되는지를 근원적으로 파악하여 그 원인을 찾아보았다. 이것은 간도 땅이 고향이기도 하고 타국이기도 하다는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공간인 것이 정착민 작가 의식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박계주의 소설은 일제 때문에 조국을 등지고 간도로 떠날 수밖에 없는 조선 유이민의 생생한 이주사이며, 韓민족의 비극적인 역사에 대한 정직한 보고서에 다름 없으며 그 의의 또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III. 간도배경 소설의 문학사적 의의

#### 1. 작가의 간도체험 유형과 중국인 이미지의 관련성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인 작가들은 자신의 견문이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소설을 발표함으로써 간도라는 공간적 배경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異민족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가야 할 처지에 처한 조선 유이민들의 삶을 다룬 그들의 작품에서 중국인의 등장이 잦아졌다. 이러한 異민족 사람들의 이미지에 재현에 있어서 작가의 실제적인 현지 체험과 불가피한 관련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유민작가, 이민작가, 정착민 작가는 각기 다른 간도 체험으로 인해 중국인 이미지도 달리 표현했다는 것이다.

김동인과 이태준은 모두 간도 거주 경험이 없다. 김동인은 청년 시기에 간도에 여행 혹은 유랑의 체험이 있었으며, 이태준은 방문의 방식으로 간도 유이민의 생활을 목격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체험적 신분이 유민이고 그들의 간도배경 소설은 모두 간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김동인의 「붉은 산」(1932)과 이태준의 「농군」(1939)은 모두 1931년에 발생한 ‘만보산 사건’에 대한 소설적 재현이다. 두 작품은 모두 조선 유이민들은 온량한 선의 대언자이고 중국인 지주는 횡포를 행하는 악의 화신으로 단순화시켜 버렸다. 어두운 현실에 대한 저항의식을 그려냄으로써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에게 민족 감정을 자극하여 나라의 운명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려 했던 작가의식도 알 수 있다.

이주문학에서는 이주와 정착의 수난사, 이주로 인한 타자와의 만남과 그로 인한 갈등/타협/혼종적 융화 및 자기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주로 다루지만<sup>109)</sup>, 김동인과 이태준의 작품에서는 그런 면이 보이지 않는다. 실제 간도 이주 경험이 없이 유랑·여행·시찰 등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소설을 쓴 김동인과 이태준의 경우 외부 시선으로 이주 현장을 재현하였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들은 조선 내지 대다수 지식인들처럼 민족감정을 강조함에 따라 간도 이민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에 다가가지도 못하였다. 김동인은 조선 농민이 겪는 고통을 지주-소작인의 대립 같은 계급문제로 보지 않고 결말

109) 차성연, 앞의 논문, 131쪽.

에서 ‘붉은 산’과 ‘흰옷’으로 중국인(만주인)/조선인(한인)의 민족갈등 문제로 처리했다. 이태준 역시 ‘만보산 사건’에 나타난 중국인과 한국인 간의 갈등을 소설화하면서 조선 이민자의 최대 적은 무지하고 야만스러운 중국인으로 그려내었다. 이는, 외부집단인 중국인들에 대한 부정적 태도 즉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이 작용된 결과이기도 하다.

김동인과 이태준에게는 조선 내지의 다수 작가들처럼 간도라는 공간이 같은 피가 흐르는 동족들이 수난당하는 장소일 뿐이고 불행을 당한 조선 이주민들은 동정과 연민의 대상에 불과하다. 유민작가인 그들에게 이민자가 이국땅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문제의 대안을 제시해 주기보다는 이민족인 중국과 대결하여 승고한 죽음으로 조선 유이민들의 민족 정체성을 입증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이들 작가의 간도배경 소설에서 나타나는 중국인 지주, 토착민, 순경, 군인 등 타자화된 이미지는 외적 시선에 의해 작가의 과도한 민족감정이 작용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또한 조선 유이민들이 현지 중국인들과 투쟁하면서 이국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조선인의 강인한 정신을 표방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최서해와 강경애는 5~10년 동안 간도에서 거주했던 이민작가이다. 그들이 주목한 대상은 간도에서 수난하고 있는 조선 유이민이었으며,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와, ‘무엇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창작하였다. 그들은 이민 작가로서 자신의 1차적 체험을 바탕으로 각각 1920년대와 1930년대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현실을 비교적 심층적으로 묘사하였다. 그들의 소설은 치열하면서도, 비교적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동 시대의 자각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빈궁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이는 이주자 외부의 시선인 유민작가에 의해 재현된 간도 조선인이 공간적 배경만 간도일 뿐인 ‘동일적 공동체’<sup>110)</sup>라는 특징을 보여 준 것과는 달리, 이주자 내부의 시선 즉 이민작가에 의해 재현된 간도 조선인들은 어떠한 공동체에도 포함되지 못한 채 3등 공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동포들의 귀속문제를 제시하였다. 다시 말하면 간도는 그들의 문학에서 작품의 무대를 넘어서 다른 의미를 지녔던 것이다. 이민 작가에 의해 간도는 행동과 사건의 물리적 배경이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장소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韓민족의 실향과 관련된 비극적인 민족체험을 담아낸 공간적 의미로 확대되었다.

이 시기 이민작가들의 작품은 역사적 현실에 대한 재현을 통해 조선 유이민 사회의 현실을 예측가능하게 해 줌으로써, 유민작가의 소설보다 질적 측면에서도 심화된 결과를 보

---

110) 차성연, 앞의 논문, 444쪽.

여준 것이다. 역사적 현실이나 시대적 의지와 관련 속에서 탐구하고자 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에 따라 그들의 소설에서 중국인 이미지는 비교적 선명하고 다양하게 나타났다. 최서해는 소설을 통해 ‘가진 자’로서의 중국인들의 비정함과 잔인성을 드러내는 데 적극적이었다. 강경애는 인물의 비참한 과거, 간교한 인격, 흉악한 행각에 대한 서술을 통해서 단면적 인식에서 벗어나 입체적인 중국인 지주의 이미지를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하층민과 조선의 하층민 간의 우정을 보여주기도 했다. 조국을 등지고 간도로 유랑 혹은 이주해 온 조선유이민들의 빈궁한 현실을 체험하거나 목격했던 최서해와 강경애는 삶의 원초적인 적은 일제나 중국인이 아니라 사회의 부조리에 있음을 확신했다. 그래서 두 작가의 작품에서 조선 유이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로 중국인이 나타나지만 그들이 고난의 근원이라기보다는 조선인들이 이주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된 난관의 일환인 사회구조적 갈등관계로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민작가의 작품들은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묘사를 추구하면서 유이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의 재현에 머문다는 한계를 보였다. 유이민들의 정착에서 발전의 대안을 모색하였지만 단순히 감정적 복수 행위나 주의자적 각성으로 그침에 따라 합당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지 못한 것이다. 이는 작가 자신의 정착 실패로 인해 작품에서도 확실한 정착의식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착민 작가인 안수길과 박계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안수길은 간도에서 20년 안팎을 살았고 스스로 ‘제2의 고향’으로 인식했다. 박계주는 간도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신의 청소년기까지 보냈다. 이들 정착민작가들은 오랫동안 유이민들의 삶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간도 유이민들의 수난과 좌절을 피부로 느꼈고 간도 이주 문제를 본질적으로 파악했다.

정착민작가들의 작품 속에서는 유이민 수난의 실상이 비교적 다각적으로 제시되었다. 안수길의 경우 주로 군상으로 조선 농민들의 간도 체험을 희망적으로 그려냈던 것과 달리, 박계주는 개인 삶의 차원에서 일반인의 희비를 묘사하면서 제도의 절망적인 현실이 원인임을 제시하였다. 이는 특히 중국인 이미지에 대한 묘사에서 확인되었다. 유이민 작가에 의해 항상 인간답지 못한 것으로 그려지는 중국인의 이미지가 안수길의 소설에서는 조선 유이민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인물로 등장하는가 하면, 박계주의 소설에서는 악질인 점만 강조하지 않고 어떻게 악인으로 변했는지를 그리며 어떻게 자신과 사회를 반성

하여 각성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인간으로 중국인을 묘사했다. 특히 안수길에 의하면 異민족과 조화를 이루며 현지인과 평화 공존하는 방식은 조선 유이민들이 ‘제2의 고향’인 간도에 뿌리를 내려 정착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다. 소설을 통해서 두 집단의 성원들이 부족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간도를 살기 좋은 터전으로 건설하겠다는 공동 목표를 위하여 함께 일하고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안수길은 제시하였다.

이러한 현실인식과 역사인식은 작가의 간도 경험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 간도란 공간은 낯선 남의 땅이기도 하고 친근한 자기 땅이기도 한 이중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난은 있으나 노력을 통해 안정된 터전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 곳을 새로운 고향으로 여기는 정착의식은 그들의 소설 곳곳에서 나타났다. 畸形된 제도를 발굴하여 현지인과의 평화 공존을 모색한다는 것이 조선 유이민의 비참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는 유일한 대안임을 그들은 제시한 것이다. 정착민작가인 안수길과 박계주의 간도 배경 소설들의 가장 큰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작가의 간도 체험이 중국인 이미지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유형에 따라 중국인 이미지를 재현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것을 작가가 간도를 객지로 보느냐 삶터로 인식하느냐에 따른 차이임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국가주의나 민족감정보다는 공존공생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시점에서 볼 때 간도를 객지로 인식한 작가들의 소설보다는 간도를 삶터로 인식한 작가들의 소설이 좀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메시지를 전해준다고 할 수 있다.

## 2. 간도배경 소설의 의의와 시사점

19세기 후반 청나라의 변경 정책은 封禁政策<sup>111)</sup>에서부터 放任政策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1860년 이후 두만강을 건너 간도 지역으로 간 조선 이주민들은 꾸준히 증가했다. 간도 지역은 오랜 봉건기간으로 인해 개간해야 할 땅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인구가 부족해 초기 조선 이주민들의 경우에는 환영을 받았다. 중국인 지주들은 소작인으로 조선인을 고용하고 토지와 필요한 생활 기반을 제공하여 경지 개간을 유도하였다. 그 결과 조선인의 간도 이주와 정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식민지인 한국에서 일본은 체계적인 수탈 정책을 추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의 신문 사설로 알 수 있듯 “地稅, 肥料代, 畝音料, 小作料, 斗量過多, 水利稅, 出浦料 등을 일일이 정산하면 소작인의 소득이 동이 될 것이”<sup>112)</sup>기 때문에 조선 농민들은 삶의 터전인 땅을 잃고 생활이 급격히 어려워져 간도로 이주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일제에 의해 부쩍 늘어난 조선인으로 인해 공간과 자원이 적어지자 중국인은 외래자인 조선 이주민들을 소외시키기 시작하였다.

특히 1931년 ‘만주사변’ 이후 ‘만주국’의 성립으로 일본이 중국 동북지역을 대륙침략의 병참기지와 식량기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른바 ‘국책이민’으로 조선인의 집단이주가 계획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는 간도의 조선 유이민 사회가 분산된 개인 행위에서 정치적 집단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때 조선인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조선이민 집거지에 일본영사관까지 들어서게 됨에 따라 중국인은 조선 이주민들을 일제 세력의 ‘앞잡이’로 간주하게 되었다. 일본을 배척하는 운동은 자연스럽게 조선인에 대한 배척으로 이어졌다. 일본도 ‘만보산 사건’ 등 사실 조작을 통해 중국과 조선을 이간질하면서 자신의 침략 정책을 밀어내었다. 그로 인해 한·중 두 민족 간의 갈등은 여러 가지 양상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조선 유이민들에게 간도는 조국을 등진 떠남과 밀려남의 공간이기도 하고 살아 숨쉴 수밖에 없는 새로운 정착지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는 식민지 질곡에 밀려 많은 문인들이 간도로 여행하거나 이주 혹은 정착함으로써 그곳의 유이민들의 삶을 목격하고 자신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 체험을 소재로 작품

---

111) 봉금정책의 목적은 주로 山海關 일대를 봉쇄함으로써 관내의 漢族들이 동북에 이주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었으나 다른 한편 압록강과 두만강을 봉쇄하여 조선에서 건너오는 韓人을 막자는 목적도 있었다.

112) 「사설-소작인이 단결하라」, 『동아일보』, 1922.8.2.

활동을 하였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김동인과 이태준 등이 있다. 그들은 조선 내지의 지식인으로서 간도에 ‘방문’ 혹은 ‘유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주 지대를 문제 삼은 작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와 달리 간도 본토에도 간도에 이주하거나 정착한 작가들에 의해 조선 문단의 외연으로서 독특한 문화를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1920년대의 최서해에 이어 1930년대의 강경애, 안수길과 1940년대의 박계주 등은 실제 간도 체험으로 간도 유이민 사회를 소설화하였다. 그들은 ‘북향회’라는 문학모임을 성립하여 기관지인 『북향』과 『만선일보』를 근거지로 많은 간도배경 작품을 발표하고 간도문단을 형성하면서 간도문학의 장을 만들었다. 韓민족의 간도 정착을 둘러싼 설움과 애환을 그려낸 그들의 작품들은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문학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생활의 반영이다. 1910년~1945년 일본제국주의의 탄압과 수탈은 언제나 조선인과 중국인이 수난당하는 근본적 원인이었다. 일제의 식민지적 통치하에 할 수 없이 조국을 등지고 이역에서 정착하게 된 조선 유이민과 어려운 현실 조건에 힘겹게 살아가야 했던 중국인은 모두 피해자이다. 일제의 민족말살 정책으로 인해 문학작품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작가들에 의해 형상화된 조선 유이민들의 고된 삶에 대한 현실적 고찰은 일제의 수탈에 대한 간접적인 폭로와 비판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침체된 조선 국내문단에 활기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문학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작가들의 작품 활동은 간도에 있는 조선인의 생활을 그리고 있는 리얼리즘적 입장을 간도 유이민들의 개척 혹은 정착 정신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문헌적 가치를 지닌다.<sup>113)</sup> 다시 말하면 대부분 문학을 지적인 작업으로서의 허구적 장치로 일관했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일제강점기 간도배경 소설들은 현실적 체험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한국 현대소설사의 한 장을 보충하기에 충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역 땅에서 혹은 이역 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어로 창작된 작품 자체라는 면에서 나아가 조선인들의 불굴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내었다는 점에서 민족성의 보전과 민족정신의 연장을 꾀한 한국의 민족문학으로서의 의미가 도출된다.

오늘날 간도 지역은 한국과 중국만의 이슈를 뛰어넘어 국제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지역의 영토문제와 민족정체성 등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따라서 21세기 한·중 양국 간의 정치·경제·문화 등 전면적으로 교류가 잦아지는 현재 상황에서 간도 지역을 중심으로 동북아 사이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은 그 전 어느 시기

113) 오양호, 『한국문학과 간도』, 앞의 책, 48~49쪽.

보다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일제강점기 간도 지역의 다양한 삶들을 그려낸 문학 작품들은 한국과 중국의 공통적인 고난사가 반영된 매개라는 점에서 현실적 의의를 지니게 된다.

일제강점기 간도배경 소설에서는 중국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들을 최소화하면서 공존하는 방식이 적절히 제시된 사례가 있다. 당시 이민작가와 정착민 작가들은 특수한 시간적·공간적 배경에서 작품을 창작해 탐구해 보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즉 문제해결의 가장 큰 핵심은 민족과 민족의 지속적이고 밀접한 접촉을 바탕으로, 상호간 협동적으로 의존하여, 동등한 지위를 유지해가는 것이 유일한 답이라는 것이다. 이는 국경의 대립, 전쟁을 뛰어넘어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의 확립과 평화정착을 실천하기 위한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간도지역인 연변 자치구의 조선족이 한·중 양국과의 지속적 우호 관계의 유지에 있어 노력해야 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 IV. 결 론

지금까지 간도배경 소설에 나타난 중국인 이미지가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가를 간도 역사의 체험자이자 간도 문학의 창출자인 작가의 신분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논의한 바를 요약·정리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간도배경 소설의 작가를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직접적 간도 이주 경험 없이 간도 여행·고찰·유랑 등 외래자의 시선으로 간도를 슬픔의 현장, 애상의 현장으로 작품화한 유민작가이다. 두 번째 유형은 직접 간도 거주 경험이 있으나 정착에 성공하지 못하여 다시 조선으로 귀국하거나 이주에 실패한 체험으로 간도의 비인간적 실상을 밝히는 이민작가이다. 세 번째 유형은 이주민 2세로 태어나거나 오랫동안 간도에 거주하여 간도를 고향처럼 인식하고 강한 정착의식을 작품화한 정착민 작가이다.

첫 번째 유형인 유민작가는 김동인과 이태준을 선정하였다. 유이민 사회를 관찰자적 입장에서 그려낸 그들의 간도 작품에서 중국인은 언제나 타자였다. 조선 유이민들은 타자인 중국인과의 민족적 대결을 통해 희생되거나 피해를 입음으로써 자신의 민족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이는 식민지화된 조선에게는 대중들의 민족의식을 공감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유이민 현실에 대한 어설픈 경험과 서툰 이해로 인해 민족주의에 대한 편향의식의 오류에 빠질 수도 있었다. 억압과 상실감에 짓눌린 유이민 동포들에게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유이민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은 김동인과 이태준의 간도배경 소설의 한계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인 이민작가는 5~10년의 간도 거주 경험을 가진 최서해와 강경애를 선정하였다. 유민작가와 달리 조선 유이민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의 일원으로 내적 시선을 통해 간도 유이민 현장을 재현한 최서해와 강경애의 작품들은,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모두 한 걸음 발전시켰다. 그들은 역사적 현실에 대한 사실적 재현으로 일제강점기 간도지역의 유이민 역사의 환원에 도움을 주고 간도 유이민들의 생활 현실을 예측가능하게 해주었다. 소설에 나타난 중국인들을 거친 날씨, 일제의 수탈, 동족간의 박해 등 여러 난관의 일환으로 등장시킨 것이고 사회구조적 갈등 관계로서 본 것이었다. 이 중국인들과

의 갈등은 민족적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의 불합리한 구조의 갈등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민작가의 작품들은 지극히 현실주의 묘사를 추구함에 따라 유이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을 재현하는 데에 머무른다는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 유이민들의 정착에서 발전의 대안을 모색하였지만 단순히 감정적 복수 행위나 주의자적 각성으로 합리적인 제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는 작가 자신의 간도 정착 실패로 인해 작품에서도 정착 의식을 드러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인 정착민 작가로는 안수길과 박계주를 대표 작가로 선정하였다. ‘남의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고향으로 간도에 백년대계를 꾸미고 싶었던 안수길과 박계주는 소설에서 수난의 실상을 비교적 다각도로 제시하면서 유이민의 비참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었다. 즉 불합리한 여건으로 인해 수난당하고 있는 조선 유이민들은 현지에 살고 있는 이민족들과 평화 공존에 노력하면서 모두의 고향인 간도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소설에 나타난 중국인 이미지들은 단순히 ‘악’한 자가 아닌 조선동포들의 ‘적’과 ‘동지’로 동시에 입체적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작가의식은 민족정체성 문제에 있어서 혼란을 일으키고 민족의식의 약화라는 위험도 없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정착민 작가의 한계로 지적될 수도 있다.

이처럼 유민·이민·정착민 작가들에 의해 조선 유이민들의 고된 삶에 대한 현실적 고찰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일제의 수탈에 대한 간접적인 폭로와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들의 견문과 실제 체험을 토대로 창작된 이 소설들은 간도 조선인의 삶에 대한 현실적 기록이고 그 중에서 간도 유이민들의 개척 혹은 정착 정신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문헌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역 땅에서 한국어로 창작된 작품 자체라는 면에서 나아가 조선인들의 불굴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내었다는 점에서 민족성의 보전과 민족정신의 연장을 꾀한 민족문학으로서의 의미가 도출된다.

특히 일제강점기 간도배경 소설에서는 타민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들을 최소화하면서 민족 간의 평화를 공존하는 방식이 적절히 제시된 사례가 있다. 이는 국경의 대립, 전쟁을 뛰어넘어 오늘날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의 확립과 평화정착을 실천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볼 수 있다. 따라서 21세기 한·중 양국 간의 정치·경제·문화 등 전면적으로 교류가 활발한 현재 상황에서 일제강점기 간도 지역의 다양한 삶들을 그려낸 문학 작품들은 한국과 중국의 공통적인 고난사가 반영된 매개라는 점에서 상당한 현실적 의의를 지닌다.

중국인 이미지가 나타난 일제강점기 한국의 간도배경 소설들이 아주 많고 이에 대한 연구 또한 여러 가지 시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편의상 김동인 · 이태준 · 최서해 · 강경애 · 안수길 · 박계주 등 여섯 명의 작가들의 대표작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 대상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이 연구가 韓민족의 이주 역사와 중국 조선족의 정착 역사에 대한 역사적 환원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 문헌>

### 1. 기본 자료

- 강경애, 『강경애 전집』, 허경진·허휘훈·채미화 주편, 보고사, 2006.
- 김동인, 『김동인 단편 전집 2』, 가람기획, 2006.
- 박계주, 『김창걸·최명익·박계주 외』, 허경진·허휘훈·채미화 편, 보고사, 2006.
- 박영준·김창걸 외, 『싹트는 대지』, 연변인민출판사, 2001.
- 안수길, 『안수길 전집』, 허경진·허휘훈·채미화 주편, 보고사, 2006.
- , 『안수길 선집 (정통한국문학대계)』, 어문각, 1988.
- 이태준, 『이태준전집 2 단편·희곡』, 깊은샘, 1988.
- , 『이태준문학전집 15』, 깊은샘, 1944.
- 최서해, 『최서해전집 상』, 광근 편, 문학과지성사, 1987.
- , 『최서해전집 하』, 광근 편, 문학과지성사, 1987.

### 2. 연구 논저

#### 1) 단행본

- 강인숙, 『김동인 -작가의 생애와 문학』, 건국대학교출판부, 1994.
- 김동리, 『김동리 전집』 7, 민음사, 1997.
- 김윤식, 『안수길 연구』, 정음사, 1986.
- , 『김동인 연구』, 민음사, 1987.
- 김철 외,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책세상, 2006.
- 김태운, 『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 박영사, 1986.
- 송백현, 『한국근대역사소설 연구』, 삼지원, 1985.
- 오양호, 『한국문학과 간도』, 문예출판사, 1988.
- , 『일제강점기 만주조선인문학 연구』, 문예출판사, 1996.

——, 『만주이민문학 연구』, 문예출판사, 2007.  
 이상진, 『한국 근대작가 12인의 초상』, 옛오늘, 2004.  
 이주일, 『한국 현대작가 연구』, 국학자료원, 2002.  
 장춘식, 『해방전 조선족이민소설 연구』, 민족출판사, 2004.  
 정덕준, 『중국조선족 문학의 어제와 오늘』, 푸른사상, 2006.  
 표언복, 『해방전 중국 유이민소설 연구』, 한국문학사, 2004.  
 홍대식 편저, 『사회심리학』, 박영사, 2007.

## 2) 논문 · 평론 · 기타

김성화, 「박계주 이민소설의 개작문제」, 『한중인문학연구』 제30집, 중국남통대 외국어학원, 2010.  
 박상준, 「최서해 소설 연구」, 『최서해 문학의 재조명』, 문학사와 비평학회, 2002.  
 백 철, 「女流人物評(其九) - 姜敬愛論」, 『女性』 3권 5호, 조선일보출판사, 1938.5.  
 송명희, 「강경애 문학의 간도와 디아스포라」,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8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8.  
 송현호, 「일제 강점기 소설에 나타난 간도의 세 가지 양상」, 제8회 한국 전통문화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07.  
 안수길, 「나자 머자니크」, 『亡命詩人』, 일지사, 1976.  
 오양호, 「이민문학론Ⅱ - 박계주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4권, 한민족어문학회, 1977.  
 우충충, 「일제강점기 한국소설에 나타난 중국인 이미지 연구」, 산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이상경, 「간도체험의 정신사」, 『작가연구』 제2호, 새미, 1996.  
 ——, 「1931년의 ‘배화 사건’과 민족주의 담론」, 『만주연구』 제11집, 만주학회, 2011.  
 임 화, 「朝鮮新文學史論序說 - 李人植으로부터 崔曙海까지」, 『조선중앙일보』, 1935.11.12.  
 주요한, 「取材의 傾向과 第三層文藝運動 - 新年號小說月評」, 『朝鮮文壇』, 1927.2.  
 차성연, 「디아스포라 서사의 윤리」, 『국제한인연구』 제6호, 국제한인문학회, 2009.  
 ——, 「이주문학에 나타난 타자 재현의 문제 - 「소금」과 「붉은 산」의 ‘재만 조선인’ 재현을

-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38집, 한민족문학학회, 2011.
- 최시한, 「김동인의 시점과 시점론」, 『문학사와 비평』 8집, 문학사와 비평학회, 2001.
- 한수영, 「내부망명자의 고독 -안수길 후기소설에 나타난 ‘망명의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61집, 한국문학회, 2012.
- 홍연실, 「간도소설연구 -최서해 · 강경애 · 안수길의 작품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三枝壽勝, 「李泰俊作品論」, 九州大學部 文學部, 1980.

## <中文摘要>

### 日帝强占期韩国小说中出现的中国人形象研究

#### -以间岛背景小说为中心-

宋 静

韩中两国的文化交流源远流长,早在新罗统一时代开始,韩国就派遣学者赴唐学习.进入19世纪之后,韩国从慕华思想中解放而出,朝鲜有识之士开始追求实事求是的学习精神.这一点从文学上也可以得以体现.特别是1910年韩日合邦之后,日本帝国主义侵略之下,大批的朝鲜移民进入'间岛'地区,开始了与中国本地具名的混居生活.中国人形象开始普遍出现在反应这一现实的日帝时期韩国'间岛'背景小说之中.尤其是根据文学作品的作者的体验身份的不同,中国人的形象则是千差万别.因此对于这个时期的'间岛'背景小说中出现的中国人形象进行细致的分析和研究可以得知当时韩国人对于中国人的认识和看法,也可以从历史角度对那段韩中两国的共同'苦难史'进行还原.

本文采取了传统的比较文学的研究方法和社会心理学的研究方法相结合的方式,选取了金东仁,李泰俊;崔曙海,姜敬爱;安寿吉,朴启周六位作者的1910年到1945年(韩国学界简称日帝强占期)的'间岛'背景小说作为研究对象.结合时代背景和作者的生活体验经历,分为三类进行研究.第一类是没有实际意义的在'间岛'地区居住过,以旅行或者考察的方式获得素材而进行小说创作的游民作家,金东仁和李泰俊属于此类;第二类是作为真正的移民移居'间岛'地区,并在'间岛'地区与当地居民共同生活,但最后移居失败归国,以实际'间岛'体验作为基础发表小说作品的移民作家,崔曙海和姜敬爱可以归属到这一类;最后一类是从小移居'间岛'地区或者作为移民二代在'间岛'地区出生,将这里看做自己的'第二故乡',从而展现出强大的定居意识,进行文学创作的定着民作家,典型的代表为安寿吉和朴启周.在这些作家的作品中,中国人的形象多种多样:有毫无人性的对朝鲜农民进行压榨的地主形象;愚昧无知的妨碍朝鲜移民水路工程的原住民形象;有同为下等民选择帮助朝鲜人的淳朴平民形象;也有虽为上等阶级却为了中国和朝鲜人民能够和平共处共同发展而展现勇气和智慧的地方主形象.

每个作家创作出的中国人的形象不尽相同,却又根据身份和意识的异同,而彼此关联,相互对比.因此本文结合社会心理学联系作者的创作身份和社会体验,通过对这六位作者的'间岛'背景作品中出现的中国人形象进行比较分析,对历史进行还原,阐明当时韩国人对于中国人的认识和看法,得出中国人形象在韩国文学中的意义以及'间岛'文学在整个韩国文学史的独特意义.